



연세대학교
글로벌한국학연구소

Institute for Global Korean Studies

K학술확산연구소사업단

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김지민 교수





전체 목차

01	강의 개요		04
	• 강의 목표 • 주요 학습지점 • 강의 방법과 일정		
02	강의 목차		08
03	강의 교안		11
04	기타 학습요소		50
05	강의 전문(국문)		55

강의 개요

강의 목표

- 한국 근현대사에서 한국 여성의 위상에 관한 전반적인 역사적 변화를 이해
- 한국의 다양한 역사적 맥락에서 여성과 가족의 경험을 조사
- 여성의 복잡한 삶의 경험을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과 연결해 더 넓은 지역 및 세계적 맥락에서 한국의 여성과 가족의 역사를 이해

주요 학습지점

본 강좌는 젠더의 관점에서 한국 근현대사를 조명하고 비교역사적 관점에서 글로벌히스토리과 연결해 보편인문학적 소통을 지향하는 역사 강좌로 기획되었다. 역사 연구는 과거의 사실을 밝히는 작업이기도 하지만, 동시대의 사회 현상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더 나아가 억압과 차별, 부조리를 없애려는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젠더의 관점에서 과거와 현재를 바라본다는 것은 성평등을 지향하는 방향성을 갖는 한편으로, 계급, 인종, 민족, 지역 등 여러 요소의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관계망에서 여성의 삶과 경험을 고찰한다. 강좌가 진행되는 동안 학습자는 역사적으로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구조와 문화적 관행이 여성에게 미친 영향뿐 아니라 여성과 가족, 사회의 변화를 다층적인 측면에서 고찰한다. 또한 교수자의 강의 내용과 강좌가 제공하는 동영상 학습 요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탐구한다.

- (1) 젠더의 관점에서 한국 근현대사를 바라볼 때, 기존의 역사서술에 대하여 어떠한 반성과 토론, 재해석이 가능한가?
- (2) 식민, 해방, 분단, 전쟁, 산업화와 민주화 등 한국 사회의 역사적 변화는 여성과 가족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 (3) 식민지 시기 한국 여성의 경험은 식민지 이전의 삶과 어떤 점에서 달랐는가? 해방 이후 한국 여성의 삶에서 식민 경험의 유산은 무엇이었는가?
- (4) 계급, 인종 혹은 민족, 교육의 정도, 지역 등에 따라 여성들의 경험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이러한 차이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 (5) 한국 사회의 여성 문제가 동시대의 세계사적 흐름과 접속하는 지점은 무엇인가?

강의 방법과 일정

본 강좌는 총 11주차로 구성되어 있다. 교수자의 강의는 10주 동안 진행되며, 11주차에 총괄평가를 실시한다. 각 주의 강의는 주제별로 4~6차시의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습자가 강의내용을 확인하는 퀴즈와 강의 내용을 보충하는 읽기 자료 등 비영상 학습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학습자는 매주 강의 영상을 시청하고 학습활동을 마쳐야 해당 주의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교수자는 주차별로 각 시기의 정치적·사회적 맥락과 함께 여성사적 혹은 젠더사적 측면에서 중요한 사건이나 인물, 사례를 소개하며, 이들을 둘러싼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관계에 대해 분석적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강의를 통해 학습자는 기존의 지배적인 역사서술을 젠더의 관점에서 다시 읽고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며 다층적인 해석의 가능성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볼 것이다.



강의 목차

01	개요 - 젠더의 관점으로 한국근현대사 바라보기	1	젠더 관점의 역사 해석
		2	젠더사 연구의 추이
		3	강의의 개요
		4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1
		5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2
02	식민지 조선 사회에서 여성과 가족(1910~30년대)	1	개화기 조선과 여성
		2	일제통치의 시작과 3.1운동
		3	신여성과 여성해방담론
		4	호주제, 이혼, 그리고 직업부인의 등장
		5	경계의 여성들
03	태평양전쟁과 총동원체제 하의 여성들(1930~40년대)	1	일본 군국주의의 움직임: 태평양전쟁으로 가는 길
		2	총동원체제와 민족말살정책
		3	독립운동과 여성
		4	제국의 여성 이미지
		5	전쟁에 동원된 여성들
04	일본군 '위안부' - 침묵을 강요당한 피해자(1940년대-1950년대)	1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등장
		2	여성들의 동원 과정
		3	그녀들의 이야기
		4	'위안소' 운영과 생활
		5	전쟁 후에도 끝나지 않은 피해
05	한국전쟁과 여성 (1940-50년대)	1	해방과 분단, 미군정기
		2	전쟁과 여성의 역할
		3	전쟁의 기억 - 피난과 피해
		4	전후 사회의 여성상



강의 목차

06	한미관계와 미군기지, 그리고 여성(1950~70년대)	1	한미관계의 역사와 주한미군
		2	군 위안부 제도의 (재)등장
		3	기기촌 계토
		4	경계와 주변인
07	한국의 근대화와 여성의 정체성, 가족의 의미(1960~70년대)	1	역사적 배경 - 개발독재정권
		2	국가가 투영한 여성상
		3	여성과 가족
		4	여성들의 인식과 경험
08	근대화와 여성 노동자(1970~80년대)	1	역사적 배경- 산업화 경제와 국가
		2	여성 노동자의 등장
		3	여성들의 경험
		4	여성 노동운동과 그 의미
09	여성 운동과 '위안부' 운동(1990년대)	1	여성 운동의 발전
		2	가족법 개정 운동과 호주제 폐지
		3	위안부' 운동의 전개
		4	위안부' 운동과 세계적 연대
10	젠더와 국가, 사회적 변화, 다문화 가족(1990~2000년대)	1	민주화 이후 여성 운동의 경향과 담론
		2	이주 여성과 다문화 사회
		3	국제결혼의 증가와 결혼 이주여성
		4	다문화주의와 담론

1주차

개요: 젠더의 관점으로 한국근현대사 바라보기

김 지 민



강의 교안



1주차

개요 - 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김 지 민



1주차 | 학습목차

학습목차

학습목표

학습내용

01. 젠더 관점의 역사 해석

- 젠더와 젠더 관점
- 젠더 관점의 역사 해석
- 젠더사 관점의 현재성

02. 젠더사 연구의 추이

- 여성사 연구의 세 단계
- 한국의 여성사 및 젠더사 연구

03. 강의의 개요

- 강의의 초점
- 강의의 구성과 내용

04.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1

- 조선시대와 여성
- 혼인과 친족관계의 변화
- 여성 표상의 변화 - '한부'와 '열녀'

05.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2

- 한글을 통한 여성들의 감정 표현
- 사례1. 원이 엄마의 편지
- 사례2. 여성들의 민사소송 자료

1주차 | 학습목표

- 강좌의 핵심 개념인 젠더와 젠더사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 젠더적 관점에서 한국 전근대사를 접근하는 방법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1주차 | 학습목표

1차시. 젠더 관점의 역사 해석



학습목차

학습목표

- 젠더와 젠더 관점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 젠더, 여성, 가족의 관점에서 역사를 본다는 것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젠더와 젠더 관점
- 젠더 관점의 역사 해석
- 젠더사 관점의 현재성

1주차 |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1차시 젠더 관점의 역사 해석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1차시 젠더 관점의 역사 해석



젠더(gender)

- 생물학적 성(sex)과 구별되는, 사회 문화적으로 형성된 성 관념
- 서로 다른 성 간의 사회적 조직
- 사회에 의해 구성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젠더와 젠더 정체성 개념

젠더와 젠더 관점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1차시 젠더 관점의 역사 해석



젠더적 관점

- 생물학적 결정론 거부
- 여성, 여성적인 것, 여성스러움에 대한 규범적 정의는 상대적이고 관계적이라는 인식
- 남성과 여성은 상대적이고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로 이해됨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1차시 젠더 관점의 역사



젠더적 관점

- 단일한 대상보다는 관계와 과정이
복잡하게 얽힌 현상을 보는 것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1차시 젠더 관점의 역사 해석



젠더사와 여성사

- ‘여성을 다루는 역사’를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여성사(women's history)
- 여성사가 곧 젠더사인 것은 아님
-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뿌리가 닿아 있는 젠더사와 여성사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1차시 젠더 관점의 역사 해석



여성사 이전 역사 속의 여성

- 시대와 사회가 부여한 여성의 역할을
잘 수행하여 ‘귀감’이 되는 여성
- ‘악행’을 통해 알려졌거나, 남성을 파멸로 이끈 ‘나쁜 여성’
- 주요한 지위에 오른 여성
 - 남성의 권위를 위한 일시적인 대리 역할,
혹은 비상조치의 도구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1차시 젠더 관점의 역사 해석



여성사 연구의 시작

- 역사에서 누락되거나 왜곡된 여성에 대한 주목
-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차별에 대한 문제 인식
- 지배 계급의 남성 위주 역사 서술에 대한 문제제기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1차시 젠더 관점의 역사 해석



역사적 주체로서의 여성

- “여성은 결코 소수가 아니며 인류의 절반을 차지한다”
- 거다 러너(Gerda Lerner)
- 여성문화 패러다임에 근거한 여성의 역사
- 역사 속 여성의 위치를 찾아주고 여성의 목소리를 드러내기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1차시 젠더 관점의 역사 해석



새로운 관점, 새로운 질문

- 여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성은 누구인가?
-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새롭게 해석할 것인가?
 - 여성에게 르네상스가 있었는가?
 - 과학혁명에 여성에게 어떤 의미인가?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1차시 젠더 관점의 역사 해석



초기 여성사에 대한 비판

- 여성에 대한 서술적 나열에 그치기 쉽다는 지적
- ‘여성들만의 잔치’가 되어 학계에서 주변화될 우려
- 여성만 다루면 좋다는 식의 낭만주의로 호를 위험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1차시 젠더 관점의 역사 해석



여성사를 넘어서는 젠더사

- “역사에서 여성 주체의 경험 서술을 넘어 이면의 이데올로기와 그 작동원리를 분석해야 한다”
- 조앤 W. 스콧(Joan W. Scott)
- 구체적인 이론 정립의 필요성
- 주체 구성의 이데올로기, 관념, 재현에 주목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1차시 젠더 관점의 역사 해석



역사 속의 여성을 발견하기

- 소외된 대상을 찾는 것뿐 아니라 이전에 간과되었던
‘관계’를 포착하고 분석하는 일
- 여성의 경험을 보충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역사 서술의 관점을 전환하기
- 여성과 남성의 차이뿐 아니라, 그 내부의 차이를 주목하기
- 남성 역시 젠더적 본질을 가진 존재로 재조명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1차시 젠더 관점의 역사 해석



‘젠더 관점으로 역사를 보기’의 의미

- 첫째, 단일한 대상이 아니라 관계와 과정이 얽힌
‘사회적 범주’로서 젠더의 개념
 - 계급, 인종, 젠더가 상호 교차하는 관계
 - 역동적이고 복잡한 관계망으로 이루어진
사회와 역사에 대한 이해

젠더 관점의 역사 해석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1차시 젠더 관점의 역사 해석



‘젠더 관점으로 역사를 보기’의 의미

- 둘째, 단일한 범주로 설정할 수 없는 여성들
 - 여성들 사이의 차이에 주목
 - 남성과 여성의 대결구도가 아닌 사회 안의 다양한 구성요소와 갈등을 고려
 - 역사 속에서 간과되었던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포착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근현대사 바라보기 | 1차시 젠더 관점의 역사



‘젠더 관점으로 역사를 보기’의 의미

- 셋째, 여성사의 범주를 넘어 역사학의 패러다임 변화를 추동하는 새로운 시도
- 젠더 정치의 작동 방식에 대한 이론적 모색을 바탕으로 새로운 역사상의 재구성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1차시 젠더 관점의 역사 해석



주제와 자료

- 성과 젠더, 섹슈얼리티, 출산, 가족관계, 일상생활 등 범위의 확장
- 공문서와 역사 기록, 개인의 편지와 일기, 구술사, 문학 등 다양한 기록 활용



젠더사 관점의 현재성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1차시 젠더 관점의 역사 해석



젠더사 관점의 현재성

- 젠더 관점으로 과거의 사실을 파악하고 해석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문제에 주목하고 그 현상을 비판적으로 이해
- 억압과 차별, 부조리를 없애는 실천으로 나아가기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1차시 젠더 관점의 역사 해석



젠더 관점의 역사관

- 성평등을 향해 나아가는 길
- 끝없는 조정과 협상, 각자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
- 지속적인 발전과 유럽 중심의 관점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 및 젠더사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1차시 젠더 관점의 역사



한국의 여성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 다양한 입장과 해석
- 비교사적 시각
- 다양한 해석에 대한 열린 시각
- 다른 요소들에 대한 고려와 전망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1차시 젠더 관점의 역사



마무리

- 젠더와 젠더 관점의 개념
- 젠더 관점으로 역사를 이해한다는 의미
- 다음 차시 : 한국 여성사 및 젠더사 연구의 추이



기획·조정
이화진·정다영

교안
이유정·윤승희

영상
김록현

1주차 | 학습목차



학습목차

학습목표

학습내용

01. 젠더 관점의 역사 해석

- 젠더와 젠더 관점
- 젠더 관점의 역사 해석
- 젠더사 관점의 현재성

02. 젠더사 연구의 추이

- 여성사 연구의 세 단계
- 한국의 여성사 및 젠더사 연구

03. 강의의 개요

- 강의의 초점
- 강의의 구성과 내용

04.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1

- 조선시대와 여성
- 혼인과 친족관계의 변화
- 여성 표상의 변화 - '한부'와 '열녀'

05.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2

- 한글을 통한 여성들의 감정 표현
- 사례1. 원이 엄마의 편지
- 사례2. 여성들의 민사소송 자료

1주차 | 학습목표

2차시. 젠더사 연구의 추이



학습목차

학습목표

- 여성사와 젠더사 연구의 세계적 흐름을 이해하고,
한국에서 여성사와 젠더사 연구가 전개되어온 양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여성사 연구의 세 단계
- 한국의 여성사 및 젠더사 연구

1주차 |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2차시 젠더사 연구의 추이



여성사 연구의 세 단계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2차시 젠더사 연구의 추이



서구에서 출발한 여성사 연구의 단계

보완사 → 공헌사 → 젠더사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2차시 젠더사 연구의 추이



보완사 (Compensatory history)

- (1960년대까지) 여성사 연구의 초기 단계
- 역사 속에서 모범과 전형이 되는 여성 명사에 주목
- 여성의 업적을 발굴하고 복원하기
- 남성적 기준에 따라 여성을 평가하는 한계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2차시 젠더사 연구의 추이



공헌사 (Contribution history)

- 역사 발전 과정의 중요한 사건에서 여성의 기여에 주목
- 노예제 폐지 운동, 참정권 운동, 노동 운동 등
- 여성의 삶 자체보다 여성의 활동이 사회 운동과 변화에 미친 효과에 주목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2차시 젠더사 연구의 추이



젠더사 (Gender history)

- 생물학적 성에 따른 분류에 도전해
사회 문화적인 젠더의 개념을 도입
- 여성을 고정된 범주로 분석하는 보완사,
공헌사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2차시 젠더사 연구의 추이



젠더사 (Gender history)

- 여성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제한적 관점에서 벗어나기
- 여성의 특성뿐 아니라 여성들 간의 차이를 보기
- 여성에 대한 차별을 고착화시키는 이분법(‘여성 대 남성’, ‘억압 대 착취’) 벗어나기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2차시 젠더사 연구의 추이



젠더사 (Gender history)

- 여성사 연구의 패러다임 변화 촉구
- 역사 속에서 성역할 구분이 작용하는 다양한 국면, 젠더로 인한 차이 및 차별을 주목
- 남성과 여성 사이의 관계, 각 성 내부의 상호 관계를 포괄한 여성 문제를 사회와 연결해 분석
- 젠더 정치의 작동 방식을 규명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2차시 젠더사 연구의 추이



한국의 여성사 및 젠더사 연구

한국의 여성사·젠더사 연구

- 서구의 여성사·젠더사 연구의 유입
- 세계적인 여성운동의 발전과 더불어 본격화
- 세계 여성사 연구의 추이와 유사한 흐름으로 전개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2차시 젠더사 연구의 추이



2000년대 이전 한국의 여성사 연구

- 역사학의 주변부로 인식된 초기의 ‘한국 여성사’ 연구
 - 남성 중심의 역사에서 배제된 여성의 역사 복원
 - 가부장제 내 여성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도 있었음
- 전쟁 피해와 민족 수탈의 차원에서 접근한 ‘위안부’ 연구
- 여성 운동의 영향을 받은 민중 여성사 연구
- 가족 내 여성의 역할에 대하여 새롭게 조명한 연구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2차시 젠더사 연구의 추이



2000년대 이후 한국 여성사 연구의 변화

- 아래로부터의 역사, 일상사 연구의 영향
- 다양한 방향의 여성사 및 젠더사 연구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2차시 젠더사 연구의 추이



한국 여성사 연구의 현재

- 공헌사 경향의 연구가 많은 한국 여성사 연구
- 젠더사의 지속적인 발전
- 서구 중심의 연구 경향을 비판하면서 비교사적 관점 차용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2차시 젠더사 연구의 추이



여성과 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를 바라보기

- 주체적 행위자로서 여성의 모습과 생활에 관심
- 각 시대의 조건에서 다양한 여성을 역사적 주체로 파악
- 여성에 대한 사회적 규제와 억압의 구조 고찰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2차시 젠더사 연구의 추이



여성과 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를 바라보기

-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문화사, 미시사, 일상사를 주목
- 사회적 소수자와 경계 혹은 주변인,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삶
- 다양한 정체성과 사회 조건, 다중성과 복합성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2차시 젠더사 연구의 추이



마무리

- 여성사 연구의 세계적 추이
- 한국 여성사 연구의 동향



기획·조정
이화진·정다영

교안
이유정·윤승희

영상
김록현

1주차 | 학습목차

**학습목차****학습목표****학습내용****01. 젠더 관점의 역사 해석**

- 젠더와 젠더 관점
- 젠더 관점의 역사 해석
- 젠더사 관점의 현재성

02. 젠더사 연구의 추이

- 여성사 연구의 세 단계
- 한국의 여성사 및 젠더사 연구

03. 강의의 개요

- 강의의 초점
- 강의의 구성과 내용

04.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1

- 조선시대와 여성
- 혼인과 친족관계의 변화
- 여성 표상의 변화 - '한부'와 '열녀'

05.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2

- 한글을 통한 여성들의 감정 표현
- 사례1. 원이 엄마의 편지
- 사례2. 여성들의 민사소송 자료

1주차 | 학습목표

3차시. 강의의 개요

**학습목차****학습목표**

- '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강의의 초점을 이해하고 강의에서 다루는 내용에 대해 소개할 수 있다.

학습내용

- 강의의 초점
- 강의의 구성과 내용

1주차 |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3차시 강의의 개요



강의의 초점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3차시 강의의 개요



강의 개요

- 여성 / 젠더사 관점에 입각한 역사학 강의
- 대상 시기 : 일제강점기부터 2000년대까지 한국 근현대사
- 시대별로 젠더 문제와 관련된 사건과 그 역사적 의미를 살피는 강의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3차시 강의의 개요



강의의 진행

- 역사적 배경에 대한 설명
- 시기별로 구체적 사건이나 인물에 초점
- 기존에 알려진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재해석
- 젠더 관점에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고 문제를 제기하기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3차시 강의의 개요



1차 자료를 활용한 역사학적 접근

- 1차 자료
 - ․ 역사적 주체의 사상, 활동,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들
 - ․ 공식 문서, 사적 문서, 시각 자료, 구술 자료 등을 포괄함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3차시 강의의 개요



강의의 초점

- 첫째, 여성과 가족, 친족 관계를 함께 다룸
 - ․ 가족은 여성사와 젠더사의 핵심 주제
 - ․ 가족을 통해 사회에서 젠더 관계가 구축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음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3차시 강의의 개요



강의의 초점

- 둘째, 도시 공간과 문화를 배경으로 여성들의 활동을 살핌
 - ․ 여성의 활동 공간과 활동의 내용, 정체성 형성
 - ․ 근대화 과정에서 도시 공간의 중요성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3차시 강의의 개요



강의의 초점

- 셋째, 국가와 민족, 경계를 넘은 여성과
여성 문제를 다룸
 - ․ 인간과 문화, 지식의 국가적 교류의 역사 속
여성들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3차시 강의의 개요



강의의 초점

- 넷째, 경제와 계급에 대한 관심
 - ․ 경제 활동의 주체로서 여성
 - ․ 노동자로서 여성

강의의 구성과 내용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3차시 강의의 개요



강의 구성

- 1주차 수업, 전근대 한국사에서 여성 문제를 개괄
- 2주차 이후 수업, 한국 근현대사의 흐름을 연대기적으로 구성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3차시 강의의 개요



2강

- 1910년대~1930년대
- 식민지 조선 사회에서 여성과 가족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3차시 강의의 개요



3강

- 식민지 말기(1930년대~1940년대)
- 전쟁총동원체제와 여성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3차시 강의의 개요



4강

- 태평양전쟁기
- 일본군 '위안부' 문제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3차시 강의의 개요



5강

- 1950년대 한국전쟁기~전후 한국 사회
- 여성과 가족 관계의 변화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3차시 강의의 개요



6강

- 1950년대 이후
- 한미관계와 미군기지
- 기지촌 여성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3차시 강의의 개요



7강

- 1960년대~1970년대
-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여성과 가족의 의미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3차시 강의의 개요



8강

- 1970년대~1980년대
- 근대화와 경제개발
- 여성 노동의 문제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3차시 강의의 개요



9강

- 1990년대 이래
- 여성운동의 발전과 '위안부' 운동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3차시 강의의 개요



10강

- 1990년대~2000년대
- 젠더와 국가, 사회 변화, 다문화 가족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3차시 강의의 개요



마무리

- 관심이 가는 시기와 주제에 대한 질문과 답을 찾기
- 다음 차시: 전근대 여성 문제를 소개



기획·조정
이화진·정다영

교안
이유정·윤승희

영상
김록현

1주차 학습목차		 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	
학습목차			
	학습목표		
학습내용			

학습목차	01. 젠더 관점의 역사 해석		04.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1	
	• 젠더와 젠더 관점 • 젠더 관점의 역사 해석 • 젠더사 관점의 현재성		• 조선시대와 여성 • 혼인과 친족관계의 변화 • 여성 표상의 변화 - '한부'와 '열녀'	
	02. 젠더사 연구의 추이		05.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2	
학습내용	• 여성사 연구의 세 단계 • 한국의 여성사 및 젠더사 연구		• 한글을 통한 여성들의 감정 표현 • 사례1. 원이 엄마의 편지 • 사례2. 여성들의 민사소송 자료	
	03. 강의의 개요			
	• 강의의 초점 • 강의의 구성과 내용			

1주차 | 학습목표

4차시.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1

 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

학습목차

학습목표

- 전근대사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 조선시대 가족과 사회 안에서 여성의 역할과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조선시대 전기와 후기에 나타나는 여성들의 모습과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조선시대와 여성
- 혼인과 친족관계의 변화
- 여성 표상의 변화 - ‘한부’와 ‘열녀’

1주차 |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

4차시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1

 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

조선시대와 여성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4차시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1



신윤복
점웃 입은 여인

‘조선시대 여성’에 대한 이미지

-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歲不同席)’; ‘정절’, ‘남성에 순종하는 여성’
- ‘전근대=여성억압’, ‘근대=여성해방’이라는 선입견

[출처01]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공유마당)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4차시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1



여성의 지위 변화의 역사

- 고려시대, 조선 전기, 조선 후기를 거치면서
변화한 여성의 지위
- 조선 후기로 갈수록 강화된 가부장권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4차시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1



조선 양반층

- 공무와 정치, 사상과 학문을 주도한 조선 사회의 지배 계층
- 나라의 근간이 된 ‘신유학’ 사상
- 삼강(三綱)[충(忠), 효(孝), 열(烈)]의 중시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4차시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1



‘남자’와 ‘여자’의 개념

- 하늘과 땅, 양(陽)과 음(陰)
- 서로 조화를 이루고 공존하는 ‘자연 현상’과 같은 관계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4차시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1



담락연첩 (1747)
월성 이씨 집안의 잔치를 묘사한 그림

성리학의 영향

- 여성의 욕망을 경계하고 남녀가 상하관계로 규정되는 변화
- 여성에게 새로운 사회질서에 부응하는 행동양식을 요구

[출처02] e뮤지엄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4차시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1



고려시대와 조선 전기

- 혼인과 가족 내에서 여성의 권리가 비교적 낮지 않음
- 기본적으로는 남성중심적 사회

혼인과 친족관계의 변화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4차시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1



조선 전기까지 여성의 삶

- 혼인과 가족관계의 중요성이 높음
- 가족 관계와 친족 제도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생활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4차시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1



혼인제도의 차이와 변화

- 중국
 - 고대부터 혼인 후 여자가 남편 집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
- 고려시대
 - 혼인 후에도 친정에 살다가 나중에 남편 집으로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4차시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1



혼인제도의 차이와 변화

- 중국
 - 고대부터 혼인 후 여자가 남편 집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
- 고려시대
 - 혼인 후에도 친정에 살다가 나중에 남편 집으로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4차시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1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의 풍습

- 처가에서 혼례식을 올리고 처가에 사는 풍습
- 조선 전기까지 유지
- 여성은 며느리보다 친정의 딸로서의 정체성이 강함



| 김홍도 <신행길> (18세기 후반)

[출처03] e유지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4차시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1



조선 전기까지 재산관리와 상속

- 아들과 딸의 균등한 재산 상속
- 제사를 이어받는 자녀에게는 상속분의 1/5을 더해 줌
- 16세기(조선 전기)까지도 혼한 ‘자녀 균분 상속’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4차시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1



조선 전기까지 재산관리와 상속

- 혼인 후에도 여성의 재산을 남편이나 시가에 귀속시키지 않고 따로 소유
- 여성이 자녀 없이 죽을 경우 재산은 친정으로 귀속
- 제사는 아들과 딸이 공동으로 돌아가면서 (때로는 외손이) 맡음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4차시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1



조선 전기까지의 족보

- 아들과 딸 구분없이 출생 순서대로 이름 기재
- 딸의 자녀들도 기재



| 함평이씨 족보

[출처04] e유지엄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4차시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1



신사임당

- 조선시대 대표적인 ‘현모양처’의 표본이라는 이미지
- 혼인 후 친정과 강한 유대, ‘딸’의 정체성
- 친정과 유대를 바탕으로 그림 등에 꾸준히 전념



| 신사임당 <초충도> (16세기)

[출처05] e유지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4차시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1



조선 후기 혼인 풍속의 변화

- 17세기 즈음부터 성리학의 강화
- 남과 여, 왕과 신하, 아버지와 자녀, 양반과 천민 – 위계와 신분에 맞는 행동 강조
- 국가의 주도로 부계와 부권 중심
- 시가 중심의 혼인 및 가족 관계 장려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4차시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1



조선 후기 혼인제도의 변화

- 여자가 혼인 후 친정에 거주하는 기간 감소
- 17세기부터 '남귀여가혼'이 줄고 시가 거주 비율 증가 - '시집간다'
- '딸'보다 '며느리'의 정체성 강화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4차시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1



조선 후기 종법제도

- 부계 중심으로 재산상속과 제사 계승을 규정
- 재산상속이 아들, 특히 맏아들 우대로 변화
- 딸이 친정에서 멀어지게 되는 현상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4차시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1



조선 후기 양반들의 재산상속

- 소수의 자녀에게 상속해 재산을 집중시키는 것을 선호
- 토지는 주로 아들, 특히 맏아들에게 상속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4차시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1



물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장자(맏아들)의 권위가 확립된 조선 후기

부계 질서 강화

여성 표상의 변화 '한부'와 '열녀'



조선 시대 대조적인 여성 표상

한부(悍婦)

조선 전기

열녀(烈女)

조선 후기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4차시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1



조선 전기의 '한부(悍婦)'

- 혼인 후에도 부부가 처가에서 살았던
풍습을 배경으로 함
- 처가와 부인의 영향력이 컸던 시대적 배경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4차시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1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정효상(鄭孝常)은 미천한 집안의 출신으로
괴과(魁科)에 발탁이 되자 기씨(奇氏)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의 집은 상당히 재산이 많았으며, 아내의 성격은 교만스럽고 사나와서,
정효상을 대하기를 노예(奴隸)처럼 하여 손발도 제대로 놀릴 수 없게 하였다.
그리고 그 장모는 더욱 성격이 사나와서 때로는 정효상에게 매질까지 하였다.”

성종실록 41권 (성종 5년(1474) 4월 28일 임오 4번째 기사)
_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웹사이트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4차시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1



[박윤창의 아내 귀덕이] “노비(奴婢)를 원수처럼 미워했는데,
집에 사내종[奴] 하나가 있어 조금 장대(壯大)하고 아름다와,
귀덕이 사랑하여 부리었다.
여종[婢]이 하나 있어, ‘귀덕이 사내종과 더불어 사통(私通)했다.’고
발설(發說)하니, 귀덕이 즉시 그 모자(母子)를 때려 죽였는데
일이 발각되어 갇히게 되었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5월 19일 신사 3번째 기사)
_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웹사이트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4차시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1



“...귀덕은 본디부터 성질이 사납고 모질음이 비할 데가 없어
박윤창(朴允昌)을 위협하고 억눌러서 종처럼 부리었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5월 19일 신사 3번째 기사)
_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웹사이트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4차시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1



박윤창은 한쪽 눈이 애꾸가 되었는데, 새로 집을 지으면서
개와를 덮고 겨우 일을 마치자 박윤창이 아내와 더불어 창문[窓牖]을 둘 곳을
의논하다가 뜻이 합하지 않으니, 귀덕(貴德)이 박윤창을 욕하기를,
“애꾸눈 놈아, 애꾸눈 놈아, 네가 일을 아는가?”
하고는, 손에 장대[長竿]를 잡고 처마 기와를 때려 부수면서 말하기를,
“네가 이미 나의 뜻을 거슬렀으니, 이런 집은 지어서 무엇하랴!”
하고는, 당실(堂室)과 창벽(窓壁)을 때려 부수어 남김이 없었으니,
그 성질이 사납고 모질음이 이와 같았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5월 19일 신사 3번째 기사)
_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웹사이트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4차시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1



“그의 아내는 서씨(徐氏)인데, 성질이 사나웠으며,
가정일은 모두가 서씨가 하자는 대로 했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다.”

성종실록 41권 (성종 5년(1474) 4월 28일 임오 3번째 기사)
_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웹사이트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4차시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1



‘한부’에 대한 기록

- 여성의 영향력이 비교적 컸던 조선 전기에 자주 등장
-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지나면서 점차 사라짐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4차시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1



조선 후기의 ‘열녀’

- 가부장제가 강화된 시대적 배경
- 열녀, 남편이 죽은 뒤 개가할 수 있음에도 개가하지 않은 여자
- 중국 전국시대부터 존재한 개념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4차시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1



전근대 사회에서 여성의 재가

- 여성이 적극적인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구조
- 여성은 남편이 죽은 뒤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이유로 재가
- 고려시대 기록에는 여성의 재혼 사례가 많이 등장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4차시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1



재가녀자손금고법 (再嫁女子孫禁錮法)

- 《경국대전》의 〈예전〉
 - ‘재가한 사족 부녀의 자손은 관리로 등용하지 않는다’
 - 조항 삽입에 대한 조선 전기 조정의 논쟁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4차시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1



‘과부의 재가 금지 조치’에 대한 조정의 논쟁

- 궁극적으로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를 지향한 조선
- 부계질서의 혼란을 막는 예방 조치로서 ‘열녀’ 개념이 중요해짐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4차시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1



가부장제 사회에서 열녀는 왜 중요한가?

- 남편 사후 여성의 재혼은 전 남편 자식들의 거취와 소속 문제를 발생시킴
- 부계적 가족제도 정착을 위한 국가의 조치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4차시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1



과부의 재가 금지 조치

- 과거제도는 양반의 신분 유지에 결정적인 요소
- 양반 여성을 중심으로 사회적인 효과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4차시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1



국가의 유학사상 권장 (충, 효)

- 백성이 유학사상을 내면화하고 그것을 지켰을 때 자부심을 느끼도록 함
- 백성의 ‘자발적 순종’
- 자발적 동의를 한 ‘열녀’들의 등장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4차시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1



열녀 개념의 강화

- 17세기 이후 재가하지 않는 과부들이 흔해짐
- 열녀는 ‘남편이 죽은 후 따라 죽는 여자’라는 의미로 극단화



향토유적이위열녀목비각
(원주시 소초면, 1887)

[출처06] 강원도청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4차시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1



‘열녀문’과 ‘열녀전’

- 성리학적 가치가 최고로 인정받던 조선 후기
- 남편을 따라 자결한 열녀는 최고의 도덕적 존재로 추앙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4차시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1



열녀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 조선 후기 유교 이데올로기에 의해 수동적으로 희생당한 여성인가?
- 당시 사회구조 안에서 현실에 대처하는 전략을 택한 여성인가?

SOURCES



[출처01] 한국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원 (신윤복 “장옷입은 여인”)

<https://gongu.copyright.or.kr/gongu/wrt/wrt/view.do?wrtSn=13216653&menuNo=200018>
[출처02] e뮤지엄(<https://www.emuseum.go.kr/>),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소장품번호: 민속 39649)[출처03] e뮤지엄(<https://www.emuseum.go.kr/>),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소장품번호: 본관 6504-19)[출처04] e뮤지엄(<https://www.emuseum.go.kr/>),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소장품번호: 족보 200)[출처05] e뮤지엄(<https://www.emuseum.go.kr/>),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소장품번호: 신수 3550)

[출처06] 강원도청 (향토유적이위열녀목비각)

<https://www.kogil.or.kr/recommend/recommendDivView.do?atcUrl=keyword&recommendIdx=8545>



기획·조정
이화진·정다영

교안
이유정·윤승희

영상
김록현

1주차 | 학습목차



학습목차

학습목표

학습내용

01. 젠더 관점의 역사 해석

- 젠더와 젠더 관점
- 젠더 관점의 역사 해석
- 젠더사 관점의 현재성

02. 젠더사 연구의 추이

- 여성사 연구의 세 단계
- 한국의 여성사 및 젠더사 연구

03. 강의의 개요

- 강의의 초점
- 강의의 구성과 내용

04.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1

- 조선시대와 여성
- 혼인과 친족관계의 변화
- 여성 표상의 변화 - '한부'와 '열녀'

05.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2

- 한글을 통한 여성들의 감정 표현
- 사례1. 원이 엄마의 편지
- 사례2. 여성들의 민사소송 자료

1주차 | 학습목표

5차시.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2



학습목차

학습목표

- 조선시대 여성들의 문자생활과 감정표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한글을 통한 여성들의 감정 표현
- 사례1. 원이 엄마의 편지
- 사례2. 여성들의 민사소송 자료

1주차 |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5차시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2

한글을 통한 감정 표현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5차시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2



조선시대 여성 교육

- 유교사상 안에서 규정된 여성의 역할
- 여성들에게 유교적 가치(충, 효, 열)를 가르침



삼강행실도

[출처 01] 국립중앙박물관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5차시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2



조선시대 여성 교육

- 국가가 주도한 유교 윤리에 맞는 여성의 '교화',
성리학적 도덕성 강조
- 양반층의 사교육
 - <사기>, <논어> 등 유학의 기본 소양을 함양
 - 여성이 자녀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5차시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2



조선시대 여성 지식인

- 지적 호기심에서 성리학을 연구하고 글을 쓴 여성들
- 실용적 내용을 책으로 펴낸 여성들

정부인 안동 장씨, 음식디미방 (1670)
한글로 쓴 최초의 여성 집필 조리서

[출처02] Wikimedia Commons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5차시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2



한글의 도입

- 여성들에게 배우의 문턱을 낮춤
-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문자
- 국가에서 여성수신서들을 한글로 번역해서 보급
- 한글 사용을 적극적으로 전파한 것은 여성들 자신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5차시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2



조선 여성과 한글

- 한글을 적극 수용, 확산한 양반 여성들
- 사회적 소수자인 여성과 비주류 문자 한글의 만남
- 한글을 깨우친 여성들의 독서 열풍
- 문학 창작, 편지 교류, 실용서 쓰기 등을 통해 한글 문화 형성



윤덕희, 독서하는 여인 (18세기)

[출처03] 한국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원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5차시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2



조선여성과 한글

- 한글을 이용해 생각과 감정을
글로 표현할 수 있게 된 여성들

사례1. 원이 엄마의 편지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5차시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2



사례1. 원이 엄마의 편지

- 16세기 조선 여인이 죽은 남편에게 쓴 한글 편지
- 1998년 경북 안동 이응태 묘에서 출토

이응태 묘에서 출토된
'원이 엄마의 편지' (16세기)

[출처04] Wikimedia Commons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5차시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2



원이 아버지께.
 당신 언제나 나에게 ‘둘이 머리 희어지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고 하셨지요.
 그런데 어찌 나를 두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나와 어린 아이는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살라고 다 버리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당신 나에게 어떻게 마음을 가져왔고,
 나는 당신에게 어떻게 마음을 가져왔었나요?
 함께 누우면 언제나 나는 당신에게 말하곤 했지요.

임세권, 원이엄마 : 편지와 미투리로 본 16세기 안동 (민속원, 2017)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5차시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2



“여보,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서로 어여뻐 여기고 사랑할까요?
 남들도 정말 우리 같을까요?”
 어찌 그런 일을 생각하지도 않고, 나를 버리고 먼저 가시는 가요.
 당신을 여의고는 아무리 해도 나는 살수 없어요.
 빨리 당신에게 가고 싶어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당신을 향한 마음을 이승에서 잊을 수 없고, 서러운 뜻 한이 없습니다.
 내 마음 어디에 두고, 자식 데리고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이내 편지 보시고 내 꿈에 와서 자세히 말해 주세요.
 당신 말을 자세히 듣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써서 넣어 드립니다.
 자세히 보시고 나에게 말해 주세요.

임세권, 원이엄마 : 편지와 미투리로 본 16세기 안동 (민속원, 2017)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5차시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2



당신 내 뱃속의 자식 낳으면 보고 말할 것 있다 하고 그렇게 가시니,
 뱃속의 자식 낳으면 누구를 아버지라 하라시는 거지요?
 아무리 한들 내 마음 같겠습니까? 이런 슬픈 일이 또 있겠습니까?
 당신은 한갓 그 곳에 가 계실 뿐이지만, 아무리 한들 내 마음 같이 서럽겠습니까?
 한도 없고 끝도 없어 다 못 쓰고 대강만 적습니다.
 이 편지 자세히 보시고 내 꿈에 와서 당신 모습 자세히 보여 주시고 또 말해 주세요.
 나는 꿈에는 당신을 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몰래 와서 보여 주세요. 하고 싶은 말, 끝이 없어 이만 적습니다.

- 병술 유월 초하룻날 집에서 아내 올림

임세권, 원이엄마 : 편지와 미투리로 본 16세기 안동 (민속원, 2017)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5차시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2



원이 엄마의 편지

- 남편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 당시 평범한 여성의 솔직한 감정 표현을 담은 글
- 16세기 경상도 방언과 한글 사용을 보여주는 자료

사례2. 여성들의 민사소송 자료

사례2. 여성들의 민사소송 자료

- 소지(所志) : 조선시대 개인 간의 분쟁에서 관청에 제출하는 문서
- 여성이 제출한 소지에는 특정한 호칭이 붙어있음
- 조선에서 여성은 법적 주체로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됨



박씨 부인이 선산 수호를 위해 올린 한글 소지 (1877)

[출처05] e뮤지엄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조선시대 소송 과정

- 문서로만 진행 : 논리적인 글쓰기와 법률적 지식 필요
- 남녀노소, 신분에 따른 차별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평민 여성의 경우 법적 지식, 논리적 글쓰기의 문턱이 높았음

여성들의 소 제기

- 소송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고, 소지 작성을 부탁
- 소지는 보통 한문으로 작성되지만 여성의 소지 중 20%는 한글로 작성
- 한 가정의 소송에서 남성만 소장을 올린 것은 아님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5차시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2



장씨 부인의 소지 (18세기 말~19세기 초)

- 출가한 딸이 부친의 사망 후 부친의 전답 소유 관계에 대한 소송을 제기
- 같은 마을 고침지가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데 대한 소 제기
- 장씨의 남편이 올린 한문 소지에 이어 장씨가 올린 소지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5차시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2



「한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소녀의 진외육촌 오라버니 고희득이 올 봄부터 그의 증조부 전답이라 하고 빼앗으려 하기로, 하늘에 사무치는 큰 원통함으로 원정을 삼공원께 올렸습니다. 삼공원께서는 ‘문서 지니고 대령하라’ 하시기로 진외육촌 오라버니를 만났는데, 오라버니 말이, ‘문서를 태울지라도 마을에는 가지고 가지 못하겠다’하니 본래 완악한 사람인 줄 알고 ‘상계택에 고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한문」 뜻하지 않게 지금 저의 진외육촌 고희득이라는 놈은 본래 완고하고 패악한 놈으로 여인을 멸시하고 억지로 떼를 써서 전답을 빼앗으려 사단을 일으키니 세상에 어찌 이처럼 근거없는 습속을 허락하겠습니까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고문서
(청구번호 83959 · 83960 · 83958 · 83962 · 83965 · 83966 · 83961 · 83964) 박준호(2018) 재인용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5차시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2



장씨 여인의 소지

- 경우에 따라 한문 소지와 한글 소지를 올림
- 한문 소지와 한글 소지의 글쓰기 방식이 다름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5차시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2



「한글2」 전후 동중에 올린 소지를 점련하여 소장 올리오니 전후 사정을 자세히 살피신 후 세상에 남의 문서를 도적하여 전답을 빼앗으려는 죄를 다스려 다른 백성을 징계하시고, 장가가 수 삼대 동안 갈아먹던 밭을 장가 소생에게 전하여 외손봉사라도 할 수 있도록 천만번 바라고 바랍니다.

「한문」 이에 감히 소장을 올리오니 살피신 후 특별히 엄금하시고 흠쳐간 논문서를 즉시 찾아주시기를 천만번 바랍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고문서
(청구번호 83959 · 83960 · 83958 · 83962 · 83965 · 83966 · 83961 · 83964) 박준호(2018) 재인용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5차시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2



장씨의 소지

- 한문 소지: 장씨가 읽을 수 없었기에 간단히 작성, 피고 이름이 잘못 기재
- 한글 소지: 장씨가 읽을 수 있었기에 억울한 심정에 대해 감정적인 호소
 - “팔자기구 [八字崎嶇]”, “각골지은 [刻骨至恩]”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5차시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2



여성들의 소지에서 한글 사용

- 소송에서 유리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
- 재판관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려는 의도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5차시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2



여성들의 소지에서 한글 사용

- 정확한 의사 전달에 한글이 효과적
- 의도한 생각, 말과 글의 일치
- 한글은 여성이 생각과 감정 표현하고 소통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됨

1주차 개요-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 5차시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2



마무리

- 선입견으로 바라보기 쉬운 조선시대 여성의 삶을
여러 측면에서 바라 봄
- 차별과 억압의 틀로만 보기 힘든 다양한 모습
- 다음 수업: 근대 이후 역사적 변화,
여성들의 삶의 조건 변화와 반응

SOURCES



[출처01] e뮤지엄(<https://www.emuseum.go.kr/>),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소장품번호: 구 2437)

[출처02] Wikimedia Commons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Korea-Eumsikdimibang-01.jpg?uselang=it>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Korea-Eumsikdimibang-02.jpg>

[출처03] 한국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원

<https://gongu.copyright.or.kr/gongu/wrt/wrt/view.do?wrtSn=13216957&menuNo=200018>

[출처04] Wikimedia Commons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Wons-mother-letter-lee-eung-tae.webp>

[출처05] e뮤지엄(<https://www.emuseum.go.kr/>),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소장품번호: 한구 1051)

REFERENCE



강명관, "조선 전기 부처제(婦處制)와 '사나운 처'(悍婦)," 《여성사연구》 25, 2016.

김정연, "한국 근대 여성사연구의 변화 추이와 전망," 《한국여성학》 32(2), 2016.

김지수, 김대홍 옮김, 《정의의 감정들》 (너머북스, 2020).

박종덕, "이음테묘 출토 한글 편지의 음운론적 연구 - 원어 엄마가 사용한 16세기 방언의 실체," 《동아시아고대학회》 38, 2015.

박준호, "조선 후기 평민 여성의 한글 소지 글쓰기," 《국학연구》 36, 2018.

이성숙, "여성사강의와 페미니스트 교수법," 《여성사연구》 8, 2008.

이성숙, "오늘날, 여성사란 무엇인가," 《여성사연구》 6, 2007.

임세권, 《원어엄마: 편지와 미투리로 본 16세기 안동》 (민속원, 2017).

정현백 외, 《글로벌 시대에 읽는 한국여성사》 (사람의무늬, 2016).

정현백, "여성사연구의 현황과 과제," 《여성사연구》 17, 2012.

주진오 외, 《한국 여성사읽어 읽기》 (푸른역사, 2013).

홍양희, "한국 근대 여성사연구의 현황과 전망, 2007-2013," 《여성사연구》 19, 2013.

Joan W. Scott, "Gender: A Useful Category of Historical Analysis,"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91(5), 1986.

Lee, E. et al., "EungTae's Tomb: A Joseon Ancestor and the Letters of Those That Loved Him," *Antiquity* 83, 2009.



기획·조정
이화진·정다영

교안
이유정·윤승희

영상
김록현

기타 학습요소

퀴즈

다음 중 젠더 혹은 젠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 ① 생물학적 성 (sex)와 구별되는 의미로, 사회 문화적으로 형성된 성의 관념을 일컫는다.
- ② 젠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생물학적 성, 성적 차이라는 표현에 담긴 생물학적인 결정론을 거부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 ③ 생명력이 가장 큰 사회조직
- ④ 가장 기본적인 사회조직

정답: ④

해설: 젠더 관점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 개별적으로가 아닌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고, 그들 간의 관계, 또 남자라는 범주 안, 여자라는 범주 안의 차이도 주목합니다.

퀴즈

여성사와 젠더사 연구는 어떤 순서대로 발전해 왔을까요? 순서대로 나열하고 각 단계를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공헌사

보완사

젠더사

정답: 보완사, 공헌사, 젠더사의 순서입니다.

해설: 초기에 역사서술에서 잘 드러나지 않던 여성들의 업적을 찾아내던 것 (보완사)에서 역사발전에서 중요한 각 사건에 여성들이 어떻게 공헌했는지를 주목하던 다음 단계 (공헌사)를 거쳐, 이전 시기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로 사회 문화적인 젠더의 개념을 도입한 다음의 단계 (젠더사)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1강 2차시, 소주제 01. 여성사 연구의 단계별 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퀴즈

조선시대 여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선전기까지는 여성들이 혼인 후에도 친정에 사는 경우가 많았다.
- ② 조선전기에는 아들과 딸이 균등한 몫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 ③ 조선후기로 갈수록 혼인한 여성의 정체성은 며느리보다는 딸에 가까워졌다.
- ④ 조선시대 전형적인 현모양처상으로 거론되곤 하는 신사임당은 친정과 강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활동했다고 볼 수 있다.
- ⑤ 조선후기 종법제도의 정착으로 부계중심의 사회질서가 굳어지게 되었다.

정답: ③

해설: 조선전기까지는 남귀여가혼의 풍습이 흔했기에 여성들은 며느리보다는 딸의 정체성을 강하게 가지고 생활했지만, 후기로 가면서 시가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졌고 여성들은 며느리의 정체성을 좀더 강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퀴즈

조선시대 문헌에 여성의 캐릭터로 종종 등장하는 ‘한부’와 ‘열녀’는 어떤 개념인가요?
그들은 서로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비슷한가요?

정답 및 해설: 한부는 주로 조선전기의 기록에 등장하는 여성의 캐릭터로, 남귀여가혼의 풍습이 강하던 시절
친정과 유대관계 하에 여성의 영향력이 비교적 강하던 시기에 성격이 강하고 때로는 사나운 성격의 여성을 가리키던 표현이었습니다.
반면 열녀는 가부장제가 강화되던 조선후기에 주로 나타났는데, 남편이 죽은 뒤 개가할 수 있음에도 개가하지 않은 여자,
뒷시기로 갈수록 죽은 남편을 따라 죽은 여자를 일컫는 표현이었습니다.
두 캐릭터는 조선전기와 후기의 사회 분위기와 여성의 지위를 대조적으로 보여주지만, 각 사회에서 허용 혹은 이상적으로 제시한 여성상을 강하고
극단적인 방식으로 달성 혹은 표출하는 캐릭터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1강 4차시, 소주제 03. 여성 캐릭터의 변화 - 한부와 열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의 전문(국문)



1

00:00:52,085 --> 00:00:54,821

여러분 안녕하세요.

2

00:00:54,821 --> 00:01:00,093

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강의를 맡은 김지민입니다.

3

00:01:00,093 --> 00:01:03,296

이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4

00:01:03,296 --> 00:01:10,637

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라는 강의 제목을 들으셨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5

00:01:10,637 --> 00:01:13,406

그리고 어떤 것을 기대하셨나요?

6

00:01:13,406 --> 00:01:22,282

이번 주 강의에는 이 강의의 주제인 젠더 관점과 젠더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음 주부터 근대사를 다루기 전에

7

00:01:22,282 --> 00:01:30,290

한국 전 근대사를 어떻게 젠더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

00:01:30,290 --> 00:01:33,259

이번 강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9

00:01:33,259 --> 00:01:45,738

먼저 강의의 개요를 소개하는 의미에서 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젠더사 연구의 추이, 이 강의에서 다룰 점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10

00:01:45,738 --> 00:01:51,578

그리고 한국 전 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

00:01:51,578 --> 00:02:06,259

이번 차시에서는 본격적인 강의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강의의 주제 즉 젠더와 젠더를 통해서 보는 역사란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2

00:02:06,259 --> 00:02:11,564

먼저 강의 제목에도 나오는 젠더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3

00:02:11,564 --> 00:02:27,080

일반적으로 여성, 남성 등으로 구분할 때 말하는 생물학적 성 즉 섹스와 구별되는 의미로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성의 관념 그리고 서로 다른 성 간의 사회적 조직을 젠더라고 부릅니다.

14

00:02:27,080 --> 00:02:34,454

젠더와 젠더 정체성은 사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15

00:02:34,454 --> 00:02:46,432

젠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생물학적 성 그리고 성적인 차이라는 표현에 담겨 있는 생물학적 결정론을 거부한다는 데 근본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16

00:02:46,432 --> 00:02:57,310

동시에 젠더 관점은 여성, 여성적인 것, 여성스러움에 대한 규범적인 정의는 상대적이며 관계적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17

00:02:57,310 --> 00:03:20,233

이런 맥락에서 남성과 여성의 젠더는 서로 개별적으로가 아닌, 상대적이고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로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18

00:03:20,233 --> 00:03:27,006

그렇다면 젠더의 관점에서 ‘역사를 본다’ 혹은 ‘젠더사를 공부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19

00:03:27,006 --> 00:03:31,277

그리고 여성사와 젠더사는 어떻게 다를까요?

20

00:03:31,277 --> 00:03:37,650

젠더사의 역사는 여성의 역사 즉 여성사와 맞닿아 있습니다.

21

00:03:37,650 --> 00:03:43,556

학자에 따라서는 여성사와 젠더사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22

00:03:43,556 --> 00:03:55,935

여성사는 여성을 다루는 역사에 포괄적인 이름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고 여성을 다룬다고 해서 모두 젠더사라고 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맞는 지적입니다.

23

00:03:55,935 --> 00:04:05,545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젠더사와 여성사는 그 뿌리가 맞닿아 있고 서로 많은 부분을 공유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24

00:04:05,545 --> 00:04:15,555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여성사와 젠더사 혹은 여성과 젠더사와 같이 여러 용어가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25

00:04:15,555 --> 00:04:23,730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이 강의에서는 여성사와 젠더사를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

00:04:23,730 --> 00:04:31,304

여성사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여성을 역사의 주체로 기록한 역사가 없었습니다.

27

00:04:31,304 --> 00:04:46,452

가끔 역사 기록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있었지만 주로 중요한 남성 인물들의 어머니 혹은 아내로 시대와 사회가 부여한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한 이들로 묘사되는 경우였습니다.

28

00:04:46,452 --> 00:04:55,728

또는 반대로 악행을 저질러서 알려진 여성, 열등감을 입증하거나 교훈을 주고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기록되는 경우

29

00:04:55,728 --> 00:05:05,605

혹은 섹슈얼리티를 권력으로 삼아 남성을 파멸로 이끈 팜므파탈의 존재가 역사 기록에 남았습니다.

30

00:05:05,605 --> 00:05:12,745

주요한 지위에 있었던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남성과 남성의 역할을 지키는 데 목적을 두었거나

31

00:05:12,745 --> 00:05:23,956

남성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리 역할을 감당하거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는 비상 조치의 수단적인 도구로 기록되었습니다.

32

00:05:23,956 --> 00:05:31,564

여성사 연구는 이런 역사 속에 여성이 누락되거나 왜곡된 데 대한 반발에서 시작했습니다.

33

00:05:31,564 --> 00:05:46,245

그 전까지 여성이 역사적으로 억압과 차별을 받아왔다는 문제 인식 그리고 기존의 역사 서술이 지배 계급의 남성 위주로 이루어졌다는 데 대한 문제 제기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34

00:05:46,245 --> 00:05:50,817

초기에 이런 흐름을 주도한 것은 미국의 여성사 연구였습니다.

35

00:05:50,817 --> 00:06:03,596

여성 사학자 거다 러너(Gerda Lerner)는 ‘여성은 결코 소수가 아니며 인류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여성이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주체라는 점을 천명했습니다.

36

00:06:03,596 --> 00:06:13,072

이를 바탕으로 인류의 절반을 구성하는 여성들이 자신들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경험을 바탕으로 남성들과는 다른,

37

00:06:13,072 --> 00:06:21,547

여성들만의 문화를 건설했다고 보고, 여성 문화 패러다임에 근거한 여성사 서술을 강조했습니다.

38

00:06:21,547 --> 00:06:37,063

여성사 학자들은 이런 패러다임 안에서 역사 서술에서 의도적으로 가려졌던 여성들의 경험, 문화를 되살리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역사적 평가를 해줘야 한다는 합의 하에 연구 성과를 내게 됩니다.

39

00:06:37,063 --> 00:06:51,310

이때 여성사는 역사 속의 여성들의 모습을 눈에 보이게 끄집어내고, 역사 속에서 여성의 위치를 찾아주며 그들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것, 그들의 관점을 보여주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40

00:06:51,310 --> 00:07:00,052

초기의 여성사 연구의 결과 여성은 무엇을 의미하며 그들은 누구인가, 라는 의문이 나오게 됐습니다.

41

00:07:00,052 --> 00:07:08,361

그리고 전통적인 역사학의 지평을 확대하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42

00:07:08,361 --> 00:07:17,703

예를 들어 여성에게 르네상스가 있었는가, 과학 혁명은 여성에게 어떤 의미인가 등과 같은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43

00:07:17,703 --> 00:07:23,609

그런데 이런 연구가 이어지면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게 됩니다.

44

00:07:23,609 --> 00:07:34,754

여성사 연구가 학문적인 패러다임을 보이지 못하고 여성에 대한 서술적 나열을 하는 글쓰기에 멈추기 쉽다는 지적이 가장 주요한 지적이었습니다.

45

00:07:34,754 --> 00:07:44,363

그렇게 될 경우 여성사 자체가 여성들만의 잔치로 끝나고 여성사가 학계에서 주변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46

00:07:44,363 --> 00:07:52,572

더불어서 여성에 관련된 것이라면 뭐든지 좋다는 식의 낭만주의로 흐를 위험도 지적되었습니다.

47

00:07:52,572 --> 00:08:03,549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여성사가 단순히 여성을 다루는 역사를 넘어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이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48

00:08:03,549 --> 00:08:09,555

여성사와 구별되는 젠더사의 개념은 이런 배경에서 등장했습니다.

49

00:08:09,555 --> 00:08:24,403

젠더사의 선구자인 역사학자 조앤 스콧은 과거 역사에서 여성 주체들의 경험 서술에 그치지 않고 그 이면에 있는 이데올로기와 그것이 작동하는 원리 등을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0

00:08:24,403 --> 00:08:34,247

여성들의 생생한 경험, 주체의 자율 의지를 넘어서 역사적 주체가 그렇게 구성되게끔 한 이데올로기와 관념, 언어와 지식 안에서

51

00:08:34,247 --> 00:08:40,753

그들 주체가 어떻게 ‘재현’되는가와 같은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2

00:08:40,753 --> 00:08:48,427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역사 속에서 여성을 발견하는 것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대상을 찾아서 볼 뿐 아니라

53

00:08:48,427 --> 00:08:56,402

이전에는 간과되었던 인간들 사이의 관계들을 새로이 포착하고 분석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54

00:08:56,402 --> 00:09:07,980

다시 말해서 과거 역사 서술에서 생략되었던 여성의 경험을 보충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역사 서술 전체에 대한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55

00:09:07,980 --> 00:09:23,396

그리고 이런 젠더사의 맥락에서 볼 때 비로소 여성과 남성의 차이뿐 아니라 여성 내부의 차이, 남성 내부의 차이를 함께 주목할 수 있고 남성 역시 젠더적 본질을 가진 존재로 재조명할 수 있게 됩니다.

56

00:09:26,399 --> 00:09:34,874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강의에서 차용하려는 관점 즉 젠더 관점으로 역사를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57

00:09:34,874 --> 00:09:38,511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58

00:09:38,511 --> 00:09:51,958

가장 먼저 염두에 둘 점은 첫째, 젠더란 하나의 사물이나 대상이 아니라 관계와 과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라는 개념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9

00:09:51,958 --> 00:09:58,264

다른 말로 하면 사회적 범주로서 젠더는 독자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60

00:09:58,264 --> 00:10:09,742

사회는 젠더뿐 아니라 계급, 인종, 국적, 연령, 지역, 정치 성향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61

00:10:09,742 --> 00:10:17,049

그중에서도 특히 계급 관계와 인종 그리고 젠더 이 세 가지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62

00:10:17,049 --> 00:10:26,659

젠더사는 필연적으로 계급, 인종 혹은 민족 문제와 상호 교차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63

00:10:26,659 --> 00:10:37,737

이들이 상호 작용하는 구성 체계를 복합적으로 볼 때 보다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관계망을 고려한 사회로서 역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64

00:10:37,737 --> 00:10:46,712

두 번째로 여러 여성들을 동질적인 성격의 단일 범주로 설정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65

00:10:46,712 --> 00:10:56,922

1990년대 이후부터 여성을 단일한 집단으로 보기보다는 여성들 사이의 차이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생겼습니다.

66

00:10:56,922 --> 00:11:01,761

이 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67

00:11:01,761 --> 00:11:10,436

오늘날 사회에서 여성 정책을 둘러싼 오해, 갈등, 담론 등은 이런 젠더 혹은 여성이라는 용어나

68

00:11:10,436 --> 00:11:21,113

그 의미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 때문에 혹은 그 개념과 범위의 복합성을 간과해서 나오는 오해 때문에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69

00:11:21,113 --> 00:11:29,121

그런데 여러 사회적 현상과 정책 등을 남녀 양자 대결 구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70

00:11:29,121 --> 00:11:41,467

사회 안의 다양한 구성 요소들과 갈등들이 그물망처럼 얽혀 있다는 이해 위에서 생각한다면 같은 현상에 대해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할 것입니다.

71

00:11:41,467 --> 00:11:51,977

이런 차원에서 역사 속의 여성을 발견한다는 것은 그동안 역사 서술에서 소외되고 누락된 여성이라는 대상을 본다는 의미일 뿐 아니라

72

00:11:51,977 --> 00:11:59,785

역사 속에서 간과되었던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새로이 포착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73

00:11:59,785 --> 00:12:13,065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날의 젠더사는 초기에 논의되었던 여성사의 범주를 넘어서 역사학의 패러다임 변화를 추동하는 새로운 역사학적 시도라는 점입니다.

74

00:12:13,065 --> 00:12:23,576

그 주요한 내용은 젠더적인 정치 작동 방식에 대한 이론적 모색을 바탕으로 새로운 역사상을 재구성한다는 것입니다.

75

00:12:23,576 --> 00:12:36,088

다루는 주제에 있어서는 기존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섹슈얼리티, 출산, 가족 관계, 일상생활 등으로 범위를 확장하고자 시도할 것입니다.

76

00:12:36,088 --> 00:12:43,129

사료 측면에서 본다면 기존의 가장 중요한 역사 자료였던 공문서나 역사 기록에 더해서

77

00:12:43,129 --> 00:12:53,105

편지와 일기, 구술사, 문학 작품 등 다양한 범주의 기록을 적극 활용해서 활용의 범주를 넓히려는 시도를 할 것입니다.

78

00:12:56,108 --> 00:13:03,582

우리가 흔히 언급하는 역사관이란 과거에 일어난 사실을 파악하고 해석하는 관점을 가리킵니다.

79

00:13:03,582 --> 00:13:12,892

젠더사를 보고 이해한다는 것은 젠더 관점을 가지고 오늘날의 문제를 주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80

00:13:12,892 --> 00:13:21,767

이렇게 볼 때 역사 연구는 과거의 사실을 밝히려는 작업이기도 하지만 현재 나타나는 현상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81

00:13:21,767 --> 00:13:30,476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사회에서 일어나는 억압과 차별, 부조리를 없애려는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82

00:13:30,476 --> 00:13:38,551

여성사와 젠더사를 공부하는 것은 이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3

00:13:38,551 --> 00:13:45,758

젠더 관점은 물론 성평등을 지향하지만 거기에 도달하는 길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84

00:13:45,758 --> 00:13:53,899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끝없는 조정과 협상이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정해진 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85

00:13:53,899 --> 00:14:04,109

저와 여러분이 이 강의를 통해서 젠더 관점으로 역사를 보고 토론해보면서 각자의 답을 찾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86

00:14:04,109 --> 00:14:08,214

더불어서 여성사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87

00:14:08,214 --> 00:14:17,790

역사학계에서는 세계사 연구가 유럽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데 대한 반성과 토론, 재해석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88

00:14:17,790 --> 00:14:23,629

여성 및 젠더의 역사 역시 그런 재해석의 분야 중 하나입니다.

89

00:14:23,629 --> 00:14:34,240

이런 점들을 생각해 봤을 때 한국의 여성사를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해서도 여러 입장과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90

00:14:34,240 --> 00:14:46,585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때때로 세계사와 각 시기 한국사를 연결 지어보고 다른 역사와 비교해보는 등으로 다양한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91

00:14:46,585 --> 00:14:52,224

특정한 사실 정보를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이 발견하게 되는 사실,

92

00:14:52,224 --> 00:15:03,736

그것을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앞으로 어떤 다른 요소들을 생각해볼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 등을 함께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93

00:15:03,736 --> 00:15:13,545

이번 차시에서는 젠더와 젠더 관점의 개념을 살펴보고 젠더 관점으로 역사를 본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94

00:15:13,545 --> 00:15:17,516

추상적인 개념들이 조금은 정리되었기를 바랍니다.

95

00:15:17,516 --> 00:15:27,226

이어서 다음 차시에서는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한국의 여성사 및 젠더사 연구의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00:00:20,353 --> 00:00:29,763

지난 차시에 젠더와 젠더 관점, 젠더를 통해 역사를 살펴볼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점 등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소개했습니다.

2

00:00:29,763 --> 00:00:34,300

젠더 관점이 나오게 된 배경과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3

00:00:34,300 --> 00:00:42,509

역사에서 여성이 했던 역할을 찾고 그 의미를 확인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젠더사와 여성사의 영역에 들어갈 것입니다.

4

00:00:42,509 --> 00:00:52,152

그런데 지난 시간에 다룬 것처럼 이제는 젠더사 관점이라는 새로운 틀로 역사를 재해석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

00:00:52,152 --> 00:00:59,692

이번 차시에는 여성사와 젠더사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 추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6

00:00:59,692 --> 00:01:09,035

본격적인 여성사 연구는 서양에서 먼저 시작되었고 이제까지 두 번의 전환기를 거치면서 발전해 온 것으로 평가합니다.

7

00:01:09,035 --> 00:01:15,542

그 흐름을 크게는 보완사, 공헌사, 젠더사의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8

00:01:15,542 --> 00:01:22,182

1960년대까지는 소위 보완사의 차원에서 여성사 연구가 시작된 시기입니다.

9

00:01:22,182 --> 00:01:35,295

보완사 compensatory history라는 명칭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이 단계의 여성사 연구는 역사 속에서 모범과 전형이 되는 여성 명사들을 주목했습니다.

10

00:01:35,295 --> 00:01:46,906

연구 초기였던 만큼 그 전까지 역사 서술에서 잘 드러나지 않던 여성들의 업적을 찾아내고 그들의 활동을 복원하는 데 의의를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1

00:01:46,906 --> 00:01:57,383

그런데 그런 귀감이 되는 여성들을 평가할 때의 기준은 결국 남성적 시각에서 칭찬받고 눈에 띄는 전형이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12

00:01:57,383 --> 00:02:03,089

보완사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이 다음 단계인 공헌사 연구였습니다.

13

00:02:03,089 --> 00:02:18,905

공헌사 즉 contribution history 단계에서는 여성사는 역사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사건 특히 노예 폐지 운동, 참정권 운동, 노동운동 등에 여성이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주목했습니다.

14

00:02:18,905 --> 00:02:30,550

그리고 이때 초점은 그 안에서 활동한 여성들의 삶 자체보다는 그들의 활동이 각 시기 운동과 변화에 미친 효과에 주목하는 데 주어졌습니다.

15

00:02:30,550 --> 00:02:37,056

앞서 보완사와 공헌사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 젠더사입니다.

16

00:02:37,056 --> 00:02:48,535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이라는 고정적이고 본질화된 카테고리에 도전해서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젠더라는 개념을 내세운 것입니다.

17

00:02:48,535 --> 00:02:56,409

기존의 보완사, 공헌사 시기의 여성사 연구는 여성을 하나의 고정된 범주로 분석한다는 본질적인 한계 때문에

18

00:02:56,409 --> 00:03:07,520

남성 중심의 역사 서술에 여성을 추가하는 보충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진정한 의미의 여성사로 보기는 힘들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관점입니다.

19

00:03:07,520 --> 00:03:13,760

여성사가 부분적으로는 여성을 보충하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20

00:03:13,760 --> 00:03:22,535

더욱이 여성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식의 여성 사회는 부작용이 따르게 됩니다.

21

00:03:22,535 --> 00:03:36,015

가령 여성들 간의 차이를 보지 못하고 동일화하게 되는 오류를 낳을 수 있고 또 역사 해석에 있어서 여성 대 남성, 억압 대 착취라는 이원화된 범주로 분석하게 되기 쉽습니다.

22

00:03:36,015 --> 00:03:43,856

이렇게 되면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오히려 고착화시키게 되는 역설이 생길 수 있습니다.

23

00:03:43,856 --> 00:03:51,097

이런 점들을 비판하면서 나온 젠더사는 여성사 연구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24

00:03:51,097 --> 00:03:59,906

즉 젠더사는 성 역할 구분이 역사 속에서 작용하는 다양한 국면, 젠더에 기반한 차이 혹은 차별의 사회적 성격,

25

00:03:59,906 --> 00:04:10,316

양성 간의 관계, 각 성 내부의 상호 관계를 포괄한 여성 문제를 전체사와 연결시켜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26

00:04:10,316 --> 00:04:21,928

이렇게 젠더의 관점을 적용한 여성의 역사는 여성과 남성의 관계성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젠더 정치의 작동 방식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7

00:04:24,864 --> 00:04:30,036

그렇다면 한국에서 여성사와 젠더사는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요.

28

00:04:30,036 --> 00:04:36,542

기본적으로 한국의 여성사 및 젠더사는 서구에서 발전한 여성사, 젠더사가 유입되었고

29

00:04:36,542 --> 00:04:45,785

세계 여성운동의 영향으로 1970년대 이래 여성운동이 활발해진 것을 배경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30

00:04:45,785 --> 00:04:54,027

그래서 앞서 살펴본 여성사 연구 발달의 추이를 한국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31

00:04:54,027 --> 00:05:01,968

한국의 여성사 연구도 거칠게 시기를 구분해 본다면 보완사, 공헌사, 젠더사의 단계를 거쳐 왔습니다.

32

00:05:01,968 --> 00:05:12,078

서구권에서 여성사가 발전한 양상과 비슷하게 초기에는 일반사의 한 부분으로서 여성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연구가 많았습니다.

33

00:05:12,078 --> 00:05:18,651

이때 여성사는 역사학에서 주변부로 인식되었고 다소 고립되었던 경향이 있습니다.

34

00:05:18,651 --> 00:05:28,695

초기 단계인 여성사는 아직은 남성 중심의 역사에서 배제되었던 여성들을 역사 속으로 복귀시키는 정도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35

00:05:28,695 --> 00:05:35,201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부장제가 규정한 여성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36

00:05:35,201 --> 00:05:38,938

또 다른 예로 위안부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37

00:05:38,938 --> 00:05:49,682

초기에 이 문제를 다룬 연구에서는 여성사의 차원이라기보다는 전쟁 피해, 민족 수탈의 차원으로만 접근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8

00:05:49,682 --> 00:05:57,290

그 후에 세계적으로 새로운 여성 운동의 열기가 전해지고 한국 내에서도 여성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39

00:05:57,290 --> 00:06:06,165

민중 여성사 연구와 가족 안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해 새로이 조명하는 연구 등이 나왔습니다.

40

00:06:06,165 --> 00:06:17,677

그리고 2000년대 이후로는 아래로부터의 역사, 그리고 일상생활에 관심을 두는 연구 등 다양한 방향에서 여성사 및 젠더사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41

00:06:17,677 --> 00:06:29,222

그렇지만 아직까지 한국사 학계에서 나오는 여성사는 공헌사의 경향을 띠는 경우가 많고 젠더사의 경우 계속해서 발전하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2

00:06:29,222 --> 00:06:38,598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의 여성사 연구는 여전히 다루어야 할 주제도, 영역도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43

00:06:38,598 --> 00:06:48,441

미국으로 대표되는 세계적 여성사 연구의 흐름과 구별되는 한국 여성사 연구의 특징이 있다면 여타 역사 연구에서 그렇듯이

44

00:06:48,441 --> 00:06:59,085

유럽과 서구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연구 경향을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서구 중심을 벗어나 비교사적 관점을 차용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45

00:06:59,085 --> 00:07:05,358

우리는 이 강의에서 여성과 젠더의 관점으로 한국의 근현대사를 보려고 합니다.

46

00:07:05,358 --> 00:07:17,170

다시 말하면 기존의 남성 중심적인 역사 서술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던 주체적 행위자로서 여성의 모습과 생활에 대해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47

00:07:17,170 --> 00:07:23,443

역사의 각 시대적 조건에서 다양한 여성들을 역사의 각 시대적 조건에서 다양한 여성들을 역사적 주체로 두고 파악하는 한편

48

00:07:23,443 --> 00:07:30,450

여성들을 구속했던 사회적 규제와 억압의 구조를 살피는 작업도 필요할 것입니다.

49

00:07:30,450 --> 00:07:37,356

같은 맥락에서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문화사, 미시사, 일상사를 주목하려고 합니다.

50

00:07:37,356 --> 00:07:47,567

여기에는 사회적 소수자와 경계 혹은 주변인,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시각, 일상 생활의 역사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51

00:07:47,567 --> 00:07:54,974

여성이라는 카테고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계급, 이념, 경제, 사회 조건, 지역에 따라 다른 모습,

52

00:07:54,974 --> 00:08:08,354

때로는 여성들 간의 내적 분할과 모순적인 모습 그들 정체성의 다중성과 복합성을 보는 것 등이 모두 여성사의 중요한 의의이자 과제이기도 합니다.

53

00:08:08,354 --> 00:08:16,596

이번 차시에서는 여성사 연구의 세계적인 추이와 한국 여성사 연구의 동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54

00:08:16,596 --> 00:08:24,470

여성사 연구의 초점이 시기별로 변화해 왔고 중간중간 전환기가 있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5

00:08:24,470 --> 00:08:37,116

이 강의에서는 이런 여성사 연구의 추이를 염두에 두고 한국 근현대사 각 시기의 중요한 장면들과 그 사이 사이에 숨겨져 있던 여성들의 모습을 찾아보려고 할 것입니다.

56

00:08:37,116 --> 00:08:44,423

다음 차시에서 이 강의에서 중점을 둘 부분과 앞으로 다루게 될 주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1

00:00:20,020 --> 00:00:25,191

지난 차시에서 여성사와 젠더사 연구의 추이를 살펴보았습니다.

2

00:00:25,191 --> 00:00:38,238

여성사가 역사 서술에서 누락되고 간과되었던 여성들의 모습을 복원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면 주체적 행위자로서 여성의 모습을 젠더, 계급, 이념, 인종과 민족 등

3

00:00:38,238 --> 00:00:46,179

다양한 층위의 정체성으로 파악하려는 것으로 그 초점을 옮겨가고 있다고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4

00:00:46,179 --> 00:00:54,354

그리고 이런 시도는 세계사에서나 한국 사학계에 있어서나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도 이야기했습니다.

5

00:00:54,354 --> 00:00:59,492

이렇게 여성사와 젠더사에 대한 대강의 배경을 이야기했는데요.

6

00:00:59,492 --> 00:01:09,135

그렇다면 그런 여성사, 젠더사적인 시각을 우리는 이 강의를 통해서 얼마나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7

00:01:09,135 --> 00:01:18,545

이번 차시에서는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 염두에 둘 점들을 이야기해보고 각 주에 다룰 주제들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8

00:01:18,545 --> 00:01:28,955

이 강의는 젠더에 대한 이론 강의라기보다는 각 시기의 중요한 사건과 역사적 의미를 찾아보려는 역사학 강의입니다.

9

00:01:28,955 --> 00:01:36,396

역사학에 기반을 두고 여성사적 관점을 차용해서 일제강점기에서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10

00:01:36,396 --> 00:01:45,271

한국의 근현대사를 시대별로 따라가면서 그 안에서 젠더 문제와 관련된 점들을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1

00:01:45,271 --> 00:01:54,581

모든 역사적 사실을 다룬다기보다는 각 강의의 시간적 배경이 되는 역사를 설명한 다음에 그 주제에 맞는 구체적인 사건이나 인물,

12

00:01:54,581 --> 00:02:01,821

사례를 통해서 젠더를 비롯한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13

00:02:01,821 --> 00:02:15,335

그 과정에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역사적 사실을 젠더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새로운 해석이 가능한지 혹은 어떤 문제 제기가 가능한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14

00:02:15,335 --> 00:02:28,448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필 때 역사학 연구에서 가장 근간을 이룬다고 할 수 있는 1차 자료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역사학적 접근의 장점을 살리고자 합니다.

15

00:02:28,448 --> 00:02:45,865

여기에서 1차 자료라는 것은 역사적 주체가 양산하거나 그 주체의 사상, 활동, 관계 등을 보여주는 당시에 배출된 공식 문서, 사적 문서, 시각 자료, 멀티미디어 자료 등을 아울러서 부르는 말입니다.

16

00:02:45,865 --> 00:02:53,439

이 강의에서 이야기할 주제와 범위는 다양하지만 그중 초점을 둘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17

00:02:53,439 --> 00:02:59,245

첫째로 여성, 가족, 친족 관계를 함께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18

00:02:59,245 --> 00:03:07,220

가족에 대한 연구는 사회사에서 많이 다루어져 왔지만 여성사와 젠더사의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19

00:03:07,220 --> 00:03:18,531

그 이유는 가족은 그 사회가 조직되는 방식 그리고 사회 안에서 젠더 관계가 어떻게 구축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20

00:03:18,531 --> 00:03:31,711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차별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가족 안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여성과 가족 관계를 같이 다루게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21

00:03:31,711 --> 00:03:38,218

두 번째로 도시 공간과 문화를 배경으로 한 여성들의 활동을 살펴볼 것입니다.

22

00:03:38,218 --> 00:03:51,497

여성들의 활동 공간과 활동의 내용, 정체성이라는 차원에서 전근대 시대에서 근대로 오면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인 부분이 도시와 문화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23

00:03:51,497 --> 00:04:00,840

세 번째, 국가와 민족, 경계를 넘나든 여성과 여성 문제도 중요한 주제로 다룰 것입니다.

24

00:04:00,840 --> 00:04:06,813

근대의 역사는 곧 인간과 문화, 지식의 국가적 교류의 역사였습니다.

25

00:04:06,813 --> 00:04:18,324

예를 들면 해외 유학으로 습득한 지식을 가지고 식민지 조선에 돌아온 여성 지식인들, 국경을 넘어 외국으로 간 여성들 등이 그런 예입니다.

26

00:04:18,324 --> 00:04:24,664

마지막으로 경제와 계급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27

00:04:24,664 --> 00:04:38,411

근대화 이래, 산업화, 도시화, 상업화 그리고 전쟁을 겪으면서 여성의 삶에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 현상 중의 하나가 사회 여러 곳에서 여성들이 경제 활동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28

00:04:38,411 --> 00:04:52,325

농업과 상업, 서비스업, 공장 노동 등 여러 부문에서 여성들이 경제 활동의 주체로서 때로는 노동운동을 통한 저항 주체로서 어떻게 활동했는지가 우리의 주요한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29

00:04:55,328 --> 00:05:03,736

다음 차시에서는 근대화로 넘어가기 전에 전근대 한국사의 여성 문제를 간단히 살피려고 합니다.

30

00:05:03,736 --> 00:05:10,877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근현대사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려고 하는데요.

31

00:05:10,877 --> 00:05:15,615

수업에서 다루게 될 주요한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32

00:05:15,615 --> 00:05:25,958

다음 시간 2강에서는 1910년대에서 1930년대까지 식민지 조선 사회에서 여성과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33

00:05:25,958 --> 00:05:38,771

3강에서는 이어서 식민지 말기 즉 1930년대에서 1940년대 태평양 전쟁기 전쟁 총동원 체제와 그 아래에 있던 여성들의 모습을 살펴볼 것입니다.

34

00:05:38,771 --> 00:05:48,981

4강에서는 태평양 전쟁기 피해와 전쟁 범죄 중에서도 가장 큰 고통을 당한 피해자들, 위안부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35

00:05:48,981 --> 00:05:59,726

5강에서는 1950년대 한국전쟁기와 전후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겪은 일들 그리고 가족 관계에 있어서의 변화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36

00:05:59,726 --> 00:06:10,403

6강에서는 1950년대를 중심으로 한미 관계와 미군 기지의 설치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기지촌의 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37

00:06:10,403 --> 00:06:24,951

7강은 1960년대와 197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의 근대화 과정 그리고 그것을 배경으로 한 여성의 정체성 문제, 가족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다룰 것입니다.

38

00:06:24,951 --> 00:06:36,462

8강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계속된 급속한 근대화와 경제 개발 과정에서 여성 노동의 문제에 초점을 둘 것입니다.

39

00:06:36,462 --> 00:06:44,203

9강에서는 1990년대 이래 활발해진 여성운동 그리고 위안부 운동의 발전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40

00:06:44,203 --> 00:06:53,212

마지막으로 10강에서 1990년대와 2000년대를 중심으로 젠더와 국가, 사회적인 변화가 여성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41

00:06:53,212 --> 00:07:01,020

그리고 다문화 가족의 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2

00:07:01,020 --> 00:07:06,359

이번 차시에서 이 수업이 중점을 둘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43

00:07:06,359 --> 00:07:09,929

그리고 앞으로 각 주에 다룰 주제를 소개했습니다.

44

00:07:09,929 --> 00:07:13,633

앞으로의 강의가 기대가 되시나요?

45

00:07:13,633 --> 00:07:20,206

그리고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특별히 관심이 가는 시기 혹은 주제가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46

00:07:20,206 --> 00:07:28,381

앞으로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가지고 있던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47

00:07:28,381 --> 00:07:41,627

다음 강의에서부터 한국 근현대사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텐데요, 그 전에 다음 차시에서 전근대의 여성 문제 특히 조선시대 여성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1

00:00:20,020 --> 00:00:32,098

지난 차시에 우리가 앞으로 이 강의에서 젠더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를 볼 때 중요하게 다룰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2

00:00:32,098 --> 00:00:50,350

역사적인 관점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 그리고 여성 및 젠더 문제와 더불어서 가족과 공간, 문화, 민족과 국가, 경제와 계급 등 여러 차원에서 여성들의 모습을 찾아보려고 한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3

00:00:50,350 --> 00:01:05,532

이번 차시에는 다음 강의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근현대사를 다루기에 앞서서 근대화 이전 특히 조선시대를 여성 및 젠더 관점으로 볼 때 어떤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

00:01:05,532 --> 00:01:12,472

여러분이 한국 역사에서 여성의 지위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5

00:01:12,472 --> 00:01:27,487

가장 흔하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마도 조선시대 가부장제 하에서 차별받던 여성들 남녀칠세부동석이나 정절에 대한 강요, 여성은 남성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가르침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6

00:01:27,487 --> 00:01:42,035

이런 조선시대 여성의 차별과 가부장제라는 인식이 굳어져서 한국사회에서 전근대 시기는 여성의 차별과 억압, 근대 이후는 여성 해방이라는 잘못된 선입견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7

00:01:42,035 --> 00:01:48,241

그런데 역사를 길게 본다면 이런 이분법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8

00:01:48,975 --> 00:01:59,786

그건 고려시대와 조선 전기 그리고 조선 후기로 가면서 여성의 지위는 여러 번의 변화를 겪었고 그 변화에는 여러 측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9

00:01:59,786 --> 00:02:07,927

일반적으로 가부장권은 조선 전기까지는 미약하다가 조선 후기로 가면서 강화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10

00:02:07,927 --> 00:02:14,400

조선은 500년 넘게 집권한 왕조 국가였고 혈통에 따른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11

00:02:14,400 --> 00:02:25,178

잘 알려져 있다시피 조선 사회에서 가장 상위의 지배 계층으로 국가의 공무와 정치를 담당하고 사상과 학문을 주도한 것은 양반 계층이었습니다.

12

00:02:25,178 --> 00:02:37,056

양반 계층이 중심이 되어서 조선의 근간이 된 사상으로 삼은 것은 신유학으로 특히 삼강(三綱), 즉 충, 효, 열을 중시했습니다.

13

00:02:37,056 --> 00:02:50,637

유학에서는 만물이 하늘과 땅의 원리에 따라 생성되고 움직인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남자는 하늘 혹은 양의 개념으로 여자는 땅 혹은 음이라는 개념으로 보는 구도가 나왔습니다.

14

00:02:50,637 --> 00:02:58,811

그런데 그 본래 의미가 남자가 여자에 군림하는 것 같은 상하 관계로 설정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15

00:02:58,811 --> 00:03:05,385

음과 양은 공존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는 자연 현상의 차원으로 이해되었습니다.

16

00:03:05,385 --> 00:03:16,996

그런데 그것이 이후 신유학 곧 성리학으로 발전하면서 여성의 성, 성적 욕망을 경계하고 남녀가 상하관계로 규정되는 방식으로 변해갔고

17

00:03:16,996 --> 00:03:23,236

그 결과 여성에게 새로운 사회질서에 부응하는 행동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8

00:03:26,239 --> 00:03:34,113

고려시대와 조선 전기까지도 혼인과 가족 관계에서 여성의 권리는 우리의 생각처럼 낮지만은 않았습니다.

19

00:03:34,113 --> 00:03:40,987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고려 시대가 기본적으로 남성 중심적 사회였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20

00:03:40,987 --> 00:03:49,229

남성이 정치 권력을 장악했고 법과 제도를 통해서 남성이 여성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니까요.

21

00:03:49,229 --> 00:03:55,435

그리고 전근대 시기의 여성들은 대부분 혼인했고 공적인 직업을 갖지 않았습니다.

42

00:07:01,020 --> 00:07:06,359

이번 차시에서 이 수업이 중점을 둘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43

00:07:06,359 --> 00:07:09,929

그리고 앞으로 각 주에 다룰 주제를 소개했습니다.

44

00:07:09,929 --> 00:07:13,633

앞으로의 강의가 기대가 되시나요?

45

00:07:13,633 --> 00:07:20,206

그리고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특별히 관심이 가는 시기 혹은 주제가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46

00:07:20,206 --> 00:07:28,381

앞으로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가지고 있던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47

00:07:28,381 --> 00:07:41,627

다음 강의에서부터 한국 근현대사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텐데요, 그 전에 다음 차시에서 전근대의 여성 문제 특히 조선시대 여성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48

00:07:53,806 --> 00:08:06,419

이에 따라 남성과 여성, 국왕과 신하, 아버지와 자녀, 주인과 하인, 양반과 천민 등이 신분과 처지에 맞는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었습니다.

49

00:08:06,419 --> 00:08:17,730

조선 국가는 중국의 제도처럼 부계 중심, 부권 중심, 시가 중심의 혼인 및 가족 관계를 추구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장려했습니다.

50

00:08:17,730 --> 00:08:31,377

그 영향으로 여자가 혼인 후에 친정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점차 짧아졌고 17세기가 되면 남귀여가혼이 줄어들어서 혼인 후에 남자 집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늘었습니다.

51

00:08:31,377 --> 00:08:36,682

혼인 생활의 거주지가 여자 집에서 남자 집 쪽으로 바뀌어 간 것입니다.

52

00:08:36,682 --> 00:08:44,023

여자들의 정체성과 역할 그리고 권리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였음에 틀림없습니다.

53

00:08:44,023 --> 00:08:55,835

이전에 혼인한 여자들께서 계속해서 친정의 딸로서의 정체성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시가의 며느리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해지게 된 것입니다.

54

00:08:55,835 --> 00:08:59,739

이때부터 종법제라는 제도가 뿌리 내리게 됩니다.

55

00:08:59,739 --> 00:09:05,478

종법이란 부계 중심으로 재산 상속이나 제사의 계승을 규정하는 것인데요.

56

00:09:05,478 --> 00:09:14,620

실질적인 사람들의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재산 상속이 아들 특히 맏아들 우대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57

00:09:14,620 --> 00:09:25,131

혼인제의 변화로 딸들이 친정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물리적으로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딸이 친정의 제사를 모시기가 힘들어졌겠죠.

58

00:09:25,131 --> 00:09:37,743

그리고 양반들은 재산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여러 자녀에게 골고루 나누기보다는 소수의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59

00:09:37,743 --> 00:09:43,149

그 결과 토지를 주로 아들 특히 큰 아들 위주로 상속하게 됩니다.

60

00:09:43,149 --> 00:09:49,755

이렇게 해서 조선 후기에서부터는 장자의 권위가 물적, 이념적으로 확립되었습니다.

61

00:09:49,755 --> 00:09:53,392

그리고 부계 질서가 강조되게 된 것입니다.

62

00:09:56,395 --> 00:10:05,338

이런 분위기의 변화는 조선 전기와 후기 기록에서 나타나는 여성들의 상반된 캐릭터에서 흥미롭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63

00:10:05,338 --> 00:10:15,548

조선 전기 기록에 종종 등장하는 한부 그리고 조선 후기의 이상적인 여성의 모델로 거론되는 열녀가 그것입니다.

64

00:10:15,548 --> 00:10:21,220

먼저 조선 전기에 눈에 띄는 여성의 캐릭터 한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65

00:10:21,220 --> 00:10:25,958

한부 혹은 한처라는 말은 사나운 처라는 뜻입니다.

66

00:10:25,958 --> 00:10:30,529

조선 전기 기록에 한부의 예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67

00:10:30,529 --> 00:10:43,075

조선 전기 한부는 아직 혼인 후에도 부부가 처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결혼한 부부에게 있어서 처가가 더 큰 영향력을 가졌다는 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68

00:10:43,075 --> 00:10:45,077

그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69

00:10:45,077 --> 00:10:55,921

성정조의 이조판서 정효상은 한미한 집안 출신으로 괴과에 합격해 기체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70

00:10:55,921 --> 00:11:08,034

기체의 집은 재산이 많았고 정효상의 처인 기씨는 성격이 교만하고 사나워 정효상을 노예처럼 대하여 수족을 놀릴 수 없게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1

00:11:08,034 --> 00:11:12,171

기씨의 모 즉 정효상 입장에서는 장모인데요.

72

00:11:12,171 --> 00:11:18,144

더욱 흉악하고 사나워서 정효상에게 매질을 할 때도 있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73

00:11:18,144 --> 00:11:21,514

정효상의 줄기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74

00:11:21,514 --> 00:11:31,924

기씨의 성품이 극히 사나워서 정효상이 기씨를 두려워하였고 평생 첩을 두지 않고 집안일도 자유롭게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75

00:11:31,924 --> 00:11:36,095

또 다른 한부의 사례가 조선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6

00:11:36,095 --> 00:11:43,869

어느 날 세조는 노비를 살해한 죄로 투옥된 박윤창의 아내 귀덕을 석방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77

00:11:43,869 --> 00:11:46,439

그 자세한 사연은 이랬습니다.

78

00:11:46,439 --> 00:11:52,244

귀덕의 집에 몸집이 장대하고 아름다운 노비가 있어서 귀덕이 총애했다고 합니다.

79

00:11:52,244 --> 00:11:59,952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집의 한 여자 종이 귀덕이 총애했던 남자 노비와 사통했다는 소문을 냈습니다.

80

00:11:59,952 --> 00:12:08,294

여기에 분노한 귀덕이 그 여자 종과 그의 딸을 잡아 때려 죽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81

00:12:08,294 --> 00:12:23,042

귀덕이 옥에 갇히자 남편인 박윤창은 귀덕이 살인한 이유는 계집종이 사실이 아닌 말을 떠들어 소문을 냈기 때문이었다고 변호했는데 남편의 변호가 효과가 있었는지 귀덕은 석방되었습니다.

82

00:12:23,042 --> 00:12:34,887

여기에 대해서 실록은 귀덕의 성격이 본래 한려 즉 사나워서 남편을 협제 즉 위협하고 견제하여 노비처럼 부렸다고 기록했습니다.

83

00:12:34,887 --> 00:12:39,658

실록에 귀덕의 성격을 보여주는 일화도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84

00:12:39,658 --> 00:12:48,167

박윤창과 귀덕 부부는 함께 새로운 집을 짓고 있었는데 집에 창문을 내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다가 이견이 생겼습니다.

85

00:12:48,167 --> 00:12:54,673

귀덕은 남편에게 “애꾸 놈아, 애꾸 놈아, 네가 이를 아느냐?” 하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86

00:12:54,673 --> 00:12:58,310

박윤창은 한쪽 눈이 멀은 사람이었습니다.

87

00:12:58,310 --> 00:13:11,891

이어서 귀덕은 막대기를 들고 집과 창, 벽을 모두 부수면서 “네가 내 뜻을 거슬렀으니, 이런 집은 지어서 무엇하리?”라고 말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88

00:13:11,891 --> 00:13:15,361

영의정까지 지낸 최항의 사례도 있습니다.

89

00:13:15,361 --> 00:13:20,800

영의정의 직분을 지낸 만큼 조선사회의 최상층부 가문이었던 셈인데요.

90

00:13:20,800 --> 00:13:24,637

최항의 아내 역시 한부로 알려졌습니다.

91

00:13:24,637 --> 00:13:37,016

최항의 즐기에 의하면 그의 아내 서씨는 성질이 사나웠고 최항은 가정 일에 대해 한결같이 서씨의 말을 들었고 자유가 없었다고 표현했습니다.

92

00:13:37,016 --> 00:13:42,288

이와 같은 한부에 대한 언급은 주로 조선 전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93

00:13:42,288 --> 00:13:52,832

혼인 후에 여성이 처가에 머무는 고려시대 이래의 친족 제도를 배경으로 여성의 영향력이 비교적 쉽게 작동했던 시기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94

00:13:52,832 --> 00:14:00,372

그런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지나면서 한부에 대한 언급은 문헌에서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95

00:14:00,372 --> 00:14:06,378

이번에는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여성 캐릭터 열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96

00:14:06,378 --> 00:14:11,817

앞서 설명했듯이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 가부장제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97

00:14:11,817 --> 00:14:19,491

이제 국가는 여성을 유순하고 순종하는 존재로 규정하고 의식화하려고 애썼습니다.

98

00:14:19,491 --> 00:14:24,897

그 결과 중의 하나가 조선 후기에 빈번하게 나오는 열녀의 존재인데요.

99

00:14:24,897 --> 00:14:30,135

조선 전기의 한부와 대조시켜 볼 수 있겠습니다.

100

00:14:30,135 --> 00:14:43,849

열녀란 남편이 죽은 뒤에 개가할 수 있음에도 개가하지 않은 여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중국 전국 시대에서부터 존재했던 개념입니다.

101

00:14:43,849 --> 00:14:59,398

전근대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적극적인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성은 경제적, 사회적 혹은 정치적 이유에서 남편이 죽은 뒤에 재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02

00:14:59,398 --> 00:15:08,707

실제로 고려 사회에서는 여성들의 재혼이 금지되지 않았고 재혼 사례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3

00:15:08,707 --> 00:15:18,684

그런데 조선의 헌법인 경국대전의 예전에는 제가 한 부녀자의 아들과 손자는 문과 시험을 볼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104

00:15:18,684 --> 00:15:31,196

그런데 이 조항의 내용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경국대전을 만들던 조선 전기에 조정에서 이 조항을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다는 사실입니다.

105

00:15:31,196 --> 00:15:42,308

논쟁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론은 여자가 두 번 결혼하는 것까지는 용인될 수 있고 세 번 시집 가는 자에 대해서는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06

00:15:42,308 --> 00:15:54,853

그런데도 경국대전에 재가한 부녀자의 자녀가 문과 시험을 볼 수 없다는 구절이 들어가게 된 것은 조선이 궁극적으로는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를 지향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107

00:15:54,853 --> 00:16:05,030

즉 열녀의 개념이 중요해진 것은 바로 부계 질서가 혼란스러워질 것을 예방하는 조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8

00:16:05,030 --> 00:16:08,434

가부장제 사회에서 열녀는 왜 중요할까요?

109

00:16:08,434 --> 00:16:15,774

남편이 죽은 후에 부인이 남자 집안을 떠나지 않는다면 부계 가계 구성에는 아무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110

00:16:15,774 --> 00:16:25,718

그런데 여자가 재혼을 할 경우에는 전 남편의 자식들 특히 아들이 어디에 속할 것인지와 같은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111

00:16:25,718 --> 00:16:38,630

그래서 조선은 국가적으로 부계적 가족 제도 정착을 위해서 열녀를 권장했고 그 방법으로 재가한 여성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방침으로 택한 셈입니다.

112

00:16:38,630 --> 00:16:47,106

조선시대 양반 남성들에게 과거 제도는 진로에서도 그렇지만 양반 신분 유지에서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113

00:16:47,106 --> 00:16:51,910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치는 상당한 사회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114

00:16:51,910 --> 00:17:01,587

양반은 사회 특권층인데 그 특권을 유지하는 수단인 과거를 치를 수 없다면 더 이상 양반으로서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115

00:17:01,587 --> 00:17:04,056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116

00:17:04,056 --> 00:17:14,900

양반 여성의 입장에서 자녀에게 이렇게 결정적인 타격이 간다면 재가를 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117

00:17:14,900 --> 00:17:22,007

나라는 이런 제재 조치를 하는 한편으로 충과 효 등의 유학사상을 권장하게 됩니다.

118

00:17:22,007 --> 00:17:30,416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지켰을 때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고 자발적 순종을 받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119

00:17:30,416 --> 00:17:41,794

다르게 말하면 나라에서 강하게 권장했지만 그것을 따른 내면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선택과 결정은 여성들이 내린 것이었다는 의미입니다.

120

00:17:41,794 --> 00:17:51,670

말하자면 나라에서 내세우는 사상에 대해 내면화하고 거기에 자발적인 동의를 한 열녀들이 나온 것입니다.

121

00:17:51,670 --> 00:17:58,210

앞서 말했듯이 처음에는 남편과 사별한 후 재혼하지 않는 여성을 열녀라고 불렀는데요.

122

00:17:58,210 --> 00:18:05,384

17세기 이후가 되면 남편과 사별 후에 재가하지 않는 여성들은 너무나 흔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123

00:18:05,384 --> 00:18:10,722

그래서 열녀의 의미는 좀 더 강화 혹은 극단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124

00:18:10,722 --> 00:18:23,102

재가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열녀가 되는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하고 이제는 남편이 죽은 후 남편을 따라 죽는 여자를 가리켜 열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125

00:18:23,102 --> 00:18:34,813

그런 여성들에게 나라는 열녀문을 하사해서 칭송했고 그런 여성들에 대해서 쓴 열녀전이 빈번하게 간행되어서 이런 여성들을 기리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126

00:18:34,813 --> 00:18:48,060

다시 말하면 성리학적인 도덕의 가치가 최고로 인정받던 조선 후기 사회에서 남편을 따라 자결한 열녀는 최고의 도덕적 존재로 추앙받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27

00:18:48,060 --> 00:18:51,597

우리는 열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128

00:18:51,597 --> 00:19:00,239

처음에는 열녀를 조선 후기 유교 이데올로기 아래 수동적이고 희생당한 여성들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29

00:19:00,239 --> 00:19:10,816

그렇지만 열녀는 당시 사회 구조 안에서 여성이 현실에 대처하는 전략이자 사회적으로 스스로를 드러내는 방법이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130

00:19:10,816 --> 00:19:25,497

여성으로서 열녀가 되는 것은 최고의 자아 실현 혹은 자기 표현의 수단이었고 이런 차원에서 열녀가 된다는 것은 수동성이 아니라 반대로 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해석입니다.

131

00:19:25,497 --> 00:19:35,807

이렇게 본다면 조선 전기 기록에 등장했던 강한 캐릭터인 여성 한부와 조선 후기의 열녀는 어쩌면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1

00:00:20,020 --> 00:00:29,362

이제까지 조선 전기에서 후기로 가면서 여성들의 지위, 그들의 가족과 사회 생활이 변화해 간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2

00:00:29,362 --> 00:00:36,036

마지막으로 여성들의 교육과 문자 생활 측면에서의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00:00:36,036 --> 00:00:41,474

앞서 말했듯이 조선은 유교를 모범으로 삼아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4

00:00:41,474 --> 00:00:49,749

그 안에서 여성의 역할이 규정되었고 그 경향은 후기로 가면서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5

00:00:49,749 --> 00:00:59,359

조선이 건국되고 나라의 틀을 잡는 헌법에 해당하는 경국대전에는 여성에게 삼강행실을 가르치라고 명시했습니다.

6

00:00:59,359 --> 00:01:09,836

이외에도 여성들을 가르칠 교과서와 같은 책들이 여럿 있었는데 여기에는 중국과 한국의 충신, 효자, 열녀의 사례를 담고 있었습니다.

7

00:01:09,836 --> 00:01:22,816

즉 조선이라는 국가가 주도한 여성 교육이란 지식과 사고를 배우고 넓히는 교육이라기보다는 국가에서 강조하는 윤리에 맞게 여성들을 교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8

00:01:22,816 --> 00:01:29,389

그리고 이런 교육의 밑바탕에 깔린 성리학적 도덕성이 여성들에게 심어졌습니다.

9

00:01:29,389 --> 00:01:37,730

사교육 차원에서 양반 가문에서는 여성들에게 〈사기〉, 〈논어〉 등을 가르치고 조상의 계보 등도 교육했습니다.

10

00:01:37,730 --> 00:01:47,407

양반 여성은 중요한 의무 중 하나인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도 유학에 관한 기본 소양을 기를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1

00:01:47,407 --> 00:01:57,050

여성에게 윤리적인 가치를 주로 가르치는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스스로 학문을 연구하고 글을 쓰는 여성 지식인들이 있었습니다.

12

00:01:57,050 --> 00:02:04,724

조선 사회에서 성리학이 보편화되면서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연구한 여성들이었습니다.

13

00:02:04,724 --> 00:02:16,236

그런가 하면 임신과 출산, 가정 관리, 요리와 같이 실용적인 내용을 담은 여성들을 독자층으로 한 책을 펴낸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14

00:02:16,236 --> 00:02:23,042

여성들에게 배움의 문턱을 낮춰준 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한글의 도입이었습니다.

15

00:02:23,042 --> 00:02:32,919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자와는 다르게 한글은 오랫동안 교육받지 않더라도 누구나 쉽게 배워서 읽고 쓸 수 있는 문자이죠.

16

00:02:32,919 --> 00:02:37,590

이 덕분에 많은 여성들이 문맹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17

00:02:37,590 --> 00:02:48,668

조선 국가는 사회의 모범이 될 만한 여성상과 윤리를 가르치는 여성 수신서들을 한글로 번역해서 보급하게 됩니다.

18

00:02:48,668 --> 00:02:54,073

그런데 한글 사용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전파한 것은 여성들이었습니다.

19

00:02:54,073 --> 00:03:07,120

양반 남성 지식인들은 한글을 경시했지만 양반 여성들은 한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서 한글이 확산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20

00:03:07,120 --> 00:03:17,564

조선 사회에서 소수자인 여성과 비주류 문자 취급을 받은 한글이 만나서 다양한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1

00:03:17,564 --> 00:03:33,346

한글을 깨우치고 독서의 재미를 알게 된 여성들 사이에 독서 열풍이 불기도 했고 여성들은 가사 소설과 같은 문학 작품뿐 아니라 한글 편지로 서로 소통하고 요리책과 같은 실용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22

00:03:33,346 --> 00:03:41,654

이렇게 여성들은 한글 문화와 발전을 이끄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23

00:03:41,654 --> 00:03:54,701

무엇보다 한글이 여성에게 준 영향 중 가장 큰 것은 이전까지 글자를 읽고 쓸 수 없었던 여성들이 스스로의 생각과 감정을 글로 표현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점입니다.

24

00:03:54,701 --> 00:04:01,374

여성들이 한글로 남긴 글을 통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조선 사회 여성에 대한 선입견

25

00:04:01,374 --> 00:04:11,818

그리고 심지어 이 시간에 이야기해온 조선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볼 수 없었던 당시 여성들의 감정과 생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26

00:04:11,818 --> 00:04:14,487

두 가지 사례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7

00:04:17,490 --> 00:04:24,664

처음 사례는 16세기 조선의 한 여인이 죽은 남편의 장례를 치르며 남편에게 쓴 편지입니다.

28

00:04:24,664 --> 00:04:27,700

흔히 원이 엄마의 편지라고 불리우는데요.

29

00:04:27,700 --> 00:04:33,106

1998년에 경북 안동에서 발굴된 무덤에서 나온 것입니다.

30

00:04:33,106 --> 00:04:37,510

연구 결과 이응태라는 사람의 묘로 밝혀졌는데요.

31

00:04:37,510 --> 00:04:50,890

발굴 당시 가로 58cm, 세로 38cm 크기의 한지에 한글로 쓰여진 이 편지 그리고 사람의 머리카락을 섞어서 짠 짚신도 한 켤레 발견되었습니다.

32

00:04:50,890 --> 00:04:54,594

그 머리카락의 주인공 또한 원이 엄마로 추정됩니다.

33

00:04:54,594 --> 00:04:57,864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34

00:04:57,864 --> 00:04:59,599

원이 아버지께.

35

00:04:59,599 --> 00:05:05,538

당신 언제나 나에게 둘이 머리 휘어지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고 하셨지요.

36

00:05:05,538 --> 00:05:09,008

그런데 어찌 나를 두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37

00:05:09,008 --> 00:05:16,382

나와 어린 아이는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살라고 다 버리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38

00:05:16,382 --> 00:05:23,222

당신 나에게 어떻게 마음을 가져왔고 나는 당신에게 어떻게 마음을 가져왔었나요.

39

00:05:23,222 --> 00:05:27,293

함께 누우면 언제나 나는 당신에게 말하곤 했지요.

40

00:05:27,293 --> 00:05:32,465

여보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서로 어여뻐 여기고 사랑할까요?

41

00:05:32,465 --> 00:05:35,335

남들도 정말 우리 같을까요?

42

00:05:35,335 --> 00:05:40,707

어찌 그런 일을 생각하지도 않고 나를 버리고 먼저 가시는가요?

43

00:05:40,707 --> 00:05:44,410

당신을 여의고는 아무리 해도 나는 살 수 없어요.

44

00:05:44,410 --> 00:05:46,479

빨리 당신에게 가고 싶어요.

45

00:05:46,479 --> 00:05:48,481

나를 데려가 주세요.

46

00:05:48,481 --> 00:05:54,487

당신을 향한 마음을 이승에서 잊을 수 없고 서러운 듯 한이 없습니다.

47

00:05:54,487 --> 00:06:00,259

내 마음 어디에 두고 자식 데리고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48

00:06:00,259 --> 00:06:04,364

이내 편지 보시고 내 꿈에 와서 자세히 말해 주세요.

49

00:06:04,364 --> 00:06:08,901

당신 말을 자세히 듣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써서 넣어드립니다.

50

00:06:08,901 --> 00:06:11,871

자세히 보시고 나에게 말해주세요.

51

00:06:11,871 --> 00:06:22,181

당신 내 배 속에 자식 낳으면 보고 말할 것 있다 하고 그렇게 가시니 배 속에 자식 낳으면 누구를 아버지라 하라시는 거지요.

52

00:06:22,181 --> 00:06:25,017

아무리 한들 내 마음 같겠습니까?

53

00:06:25,017 --> 00:06:27,987

이런 슬픈 일이 또 있겠습니까?

54

00:06:27,987 --> 00:06:34,761

당신은 한갓 그곳에 가 계실 뿐이지만 아무리 한들 내 마음같이 서럽겠습니까?

55

00:06:34,761 --> 00:06:39,532

한도 없고 끝도 없어 다 못 쓰고 대강만 적습니다.

56

00:06:39,532 --> 00:06:47,106

이 편지 자세히 보시고 내 꿈에 와서 당신 모습 자세히 보여주시고 또 말해주세요.

57

00:06:47,106 --> 00:06:50,710

나는 꿈에는 당신을 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58

00:06:50,710 --> 00:06:52,345

몰래 와서 보여주세요.

59

00:06:52,345 --> 00:06:56,349

하고 싶은 말 끝이 없어 이만 적습니다.

60

00:06:56,349 --> 00:07:04,290

병술 6월 초하루 날 집에서 아내 올림.

61

00:07:04,290 --> 00:07:17,303

“남들도 우리처럼 서로 어여빠 여기고 사랑할까요?”라고 대화하고 꿈속에서 나마 모습을 자세히 보여달라는 구절에서 남편에 대한 사랑과 그리워하는 절절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62

00:07:17,303 --> 00:07:30,316

앞서 보았던 성리학적 이념이나 열녀라는 개념만으로는 보이지 않던 당시를 살아갔던 평범한 여성의 솔직한 감정이 글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63

00:07:30,316 --> 00:07:42,595

이 편지는 세계 고고학 저널과 언론에도 소개되어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16세기 경상도 지역 방언과 한글 사용을 연구하는 귀한 자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64

00:07:45,598 --> 00:07:49,435

두 번째 사례는 여성들의 민사 소송 자료입니다.

65

00:07:49,435 --> 00:07:58,177

조선시대에 개인 간의 분쟁 즉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관청에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문서를 소지(所志)라고 부릅니다.

66

00:07:58,177 --> 00:08:06,619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은 일정한 양식을 따른 소지를 관청에 제출해야만 그 절차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67

00:08:06,619 --> 00:08:15,828

여성이 제출한 소지의 경우 특정한 호칭이 붙어 있어서 쉽게 여성들이 작성한 소지 자료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68

00:08:15,828 --> 00:08:26,539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았던 조선에서 여성이 법적 주체로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었던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69

00:08:26,539 --> 00:08:30,343

당시 소송 과정은 문서로만 진행되었습니다.

70

00:08:30,343 --> 00:08:37,517

그래서 소지를 작성하려면 논리적인 글쓰기 능력과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71

00:08:37,517 --> 00:08:42,588

소를 제기하는 데는 남녀노소 신분으로 인한 차별이 없었습니다.

72

00:08:42,588 --> 00:08:52,532

그렇지만 일반 평민들은 법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글을 배우지 못했을 뿐 아니라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73

00:08:52,532 --> 00:08:58,271

평민 여성이라면 그 문턱은 더더욱 높았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죠.

74

00:08:58,271 --> 00:09:06,879

이런 사람들은 소송을 위해 소송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법률적 자문과 대신 글쓰기를 부탁했습니다.

75

00:09:06,879 --> 00:09:15,288

소지는 보통 한문으로 작성되었는데 여성들이 제출한 소지 중 약 20%가 한글로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76

00:09:15,288 --> 00:09:24,463

어떤 경우에는 한 가정이 소송을 제기하는데 한문을 쓸 줄 아는 남성이 있다고 해서 남성만이 소장을 올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77

00:09:24,463 --> 00:09:28,968

경우에 따라 부부가 번갈아 소장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78

00:09:28,968 --> 00:09:36,842

이때 남성은 한문 소장만을 올리고 여성은 한문 혹은 한글 소장을 올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9

00:09:36,842 --> 00:09:41,180

한 예로 장씨성의 여성이 올린 소지를 보겠습니다.

80

00:09:41,180 --> 00:09:46,419

시기는 조선 후기인 18세기 말 혹은 19세기 초로 추정됩니다.

81

00:09:46,419 --> 00:09:58,064

장씨는 출가 후 고향을 떠나 살았는데 홀로 살던 부친이 세상을 뜨고 난 후 부친이 농사 짓던 전답의 소유 관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82

00:09:58,064 --> 00:10:07,640

그 부친과 같은 마을에 살고 있던 고침지라는 인물이 그 땅이 본래 자신 집안 소유라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83

00:10:07,640 --> 00:10:18,217

여기에 대해 먼저 장씨의 남편이 한문으로 소지를 올렸지만 유리한 판결이 나오지 않자 부인인 장씨가 소지를 올렸습니다.

84

00:10:18,217 --> 00:10:26,425

부인 장씨는 어떤 경우에는 한문, 다른 경우에는 한글로 쓴 소지를 올렸습니다.

85

00:10:26,425 --> 00:10:37,169

두 경우 모두 누군가가 대서해준 것으로 짐작되는데 정황상 한글의 경우 장씨가 글을 쓰지는 못해도 읽을 수는 있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86

00:10:37,169 --> 00:10:44,543

그리고 장씨가 올린 한글과 한문 소지의 글쓰기 방식에는 차이점이 보입니다.

87

00:10:44,543 --> 00:10:51,951

장씨가 올린 소지의 한글과 한문 버전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88

00:10:51,951 --> 00:11:06,399

한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소녀의 진외육촌 오라버니 고희돌이 올 봄부터 그의 증조부 전답이라 하고 빼앗으려 하기로 하늘에 사무치는 큰 원통함으로 원정을 삼공헌께 올렸습니다.

89

00:11:06,399 --> 00:11:14,206

삼공헌께서는 ‘문서 지니고 대령하라’ 하시기로 진외육촌 오라버니를 만났는데, 오라버니 말이, ‘

90

00:11:14,206 --> 00:11:25,084

‘문서를 태울지라도 마을에는 가지고 가지 못하겠다’ 하니 본래 완악한 사람인 줄 알고 ‘상계택에 고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91

00:11:25,084 --> 00:11:34,493

한문. 뜻하지 않게 지금 저의 진외육촌 고희돌이라는 놈은 본래 완고하고 폐악한 놈으로 여인을 멸시하고

92

00:11:34,493 --> 00:11:44,570

억지로 떼를 써서 전답을 빼앗으려 사단을 일으키니 세상이 어찌 이처럼 근거 없는 습속을 허락하겠습니까?

93

00:11:44,570 --> 00:11:52,845

한글. 전후 동중에 올린 소지를 점련하여 소장을 올리오니 전후 사정을 자세히 살피신 후

94

00:11:52,845 --> 00:11:59,852

세상에 남의 문서를 도적하여 전답을 빼앗으려는 죄를 다스려 다른 백성을 징계하시고

95

00:11:59,852 --> 00:12:10,262

장가가 수 3대 동안 갈아 먹던 밭을 장가 소생에게 전하여 외손 봉사라도 할 수 있도록 천만 번 바라고 바랍니다.

96

00:12:10,262 --> 00:12:26,645

한문. 이에 감히 소장을 올리오니 살피신 후 특별히 엄금하시고 훔쳐간 논 문서를 즉시 찾아주시기를 천만 번 바랍니다.

97

00:12:26,645 --> 00:12:39,058

한문의 경우 장씨가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이 생략된 채 간단하게 작성되었고 피고의 이름과 같은 부분이 잘못 기재된 줄도 모르고 제출했습니다.

98

00:12:39,058 --> 00:12:45,664

한글의 경우 장씨가 한글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전달하려는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었고

99

00:12:45,664 --> 00:12:56,876

구구절절하게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팔자기구(八字崎嶇), 각골지은(刻骨至恩) 등으로 감성에 호소하는 표현을 많이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100

00:12:56,876 --> 00:13:07,953

장씨의 경우처럼 소지를 내는 데 한문 혹은 한글 문자를 택한 것은 소송에서 유리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의 결과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101

00:13:07,953 --> 00:13:21,300

특히 여성들의 한글 소지는 재판관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나 상황을 설명하는 데 더 정확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102

00:13:21,300 --> 00:13:27,072

즉 여성들이 정확한 의사 전달을 하기 위해서가 가장 큰 이유였는데요.

103

00:13:27,072 --> 00:13:34,914

의도한 생각 그리고 말이 일치되는 글인 한글이 거기에 가장 효과적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104

00:13:34,914 --> 00:13:50,329

이처럼 한글은 조선시대 여성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 되었고 한글을 통해 더 폭넓은 여성들이 자신의 생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105

00:13:50,329 --> 00:14:06,078

이번 차시에서는 흔히 생각하기에 한국 전근대사에서 여성의 차별과 억압이라는 선입견으로만 생각하기 쉬운 조선시대 여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과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06

00:14:06,078 --> 00:14:16,088

단순히 차별과 억압으로만 치부될 수 없는 시대에 따른 변화 그리고 다양한 모습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07

00:14:16,088 --> 00:14:27,466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성과 젠더의 관점에서 한국사를 다루는 것의 의미 그리고 전근대에서 여성의 위치와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108

00:14:27,466 --> 00:14:40,679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근대 이후의 역사적인 변화 그리고 여성들의 삶의 조건은 어떻게 바뀌었고 여성들은 거기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